

碩士學位論文

濟州道 孝行說話의 教育的 活用 方案

指導教授 玄 丞 桓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愼 銀 貞

2006年 2月

碩士學位論文

濟州道 孝行說話의 教育的 活用 方案

指導教授 玄 丞 桓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愼 銀 貞

2006年 2月

# 濟州道 孝行說話의 教育的 活用 方案

指導教授 玄 丞 桓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년 월 일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提出者 愼 銀 貞

愼銀貞의 敎育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년 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國文抄錄>

## 濟州道 孝行說話의 教育的 活用 方案

愼 銀 貞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玄 丞 桓

이 연구는 제주도에 전승되는 효행설화와 효행을 기술한 문헌을 대상으로 문학교육 제재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현재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유발, 배경 지식의 활성화, 정서적 공감, 지역 문화에의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효행설화는 전통적 윤리 규범인 효를 중심으로 한 설화이다. 이러한 설화를 전승하는 이유는 효를 장려하고 효 관념을 강화시켜 주는 교육적 기능과 문학적인 흥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문학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중요한 작업이기에 국어교육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했다. 나아가 설화의 일반적 특징을 대상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뿐 아니라, 제주도적인 특성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 효행설화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승양상에서는 정성을 다해 봉양하는 효, 순종과 희생의 효, 지성이면 감천형 효, 효불효형(孝不孝型), 불효자의 개심형(改心型)으로 내용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전승의식에서는 효의 본질이 물질적인 봉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공경하고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에 있고 현실적인 고난이나 불행은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밝고 낙천적인 세계관과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제주인의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셋째, 문학교육을 위한 제제에서는 인물, 배경, 서사전개, 언어 표현면으로 나누어 작품이 갖는 문학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문학교육 제제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현재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블룸이 제시한 5단계(감수-반응-가치화-조직화-성격화)를 참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육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 중 실제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 지역과의 비교가 없이 제주도에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라 그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제주도 지역의 자료의 분석만으로도 한국의 전통적 효의 개념과 가치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 이 논문은 2005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임.

# 目 次

<國文抄錄> .....	i
<b>I. 서론</b> .....	1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B. 연구방법과 범위 .....	4
<b>II. 전승양상과 수용의식</b> .....	6
A. 전승양상 .....	6
B. 수용의식 .....	18
<b>III. 문학교육 제재로서의 활용</b> .....	27
A. 서사와 문학성 .....	27
B. 듣기·말하기 제재 .....	36
<b>IV. 지도의 실제</b> .....	43
A. 교수·학습을 위한 지도 요소 .....	43
B. 교수·학습 모형의 실제 .....	47
<b>V. 결론</b> .....	65
<b>참 고 문 헌</b> .....	66
<Abstract> .....	70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설화는 오랜 세월 동안 구비 전승되면서 민중의 사상·감정과 풍습들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적 정서 함양과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과 세계관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효행설화는 전통적 윤리 규범인 효를 중심으로 한 설화로서 효를 장려하고 효 관념을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학적 흥미와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었으며,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도 효행설화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효행설화 연구는 설화 문학의 이해와 함께 전통적인 효 의식의 올바른 파악을 통한 효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근대화되면서 가치관이 정착되기도 전에 서구 문화가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올바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확립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풍조는 효 윤리에 대한 관심과 효행 실천을 날로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과거의 시대에 맞게 효를 행하였고 지금은 지금에 맞는 효의 형식이 있을 것이다. 효의 실천 방법이야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근본 정신은 정신적 윤리적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계승되어야 한다.

효행설화를 연구하는 것은 가치관이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도 효를 실천하는 진정한 효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승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효행설화를 분석해봄으로써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효행설화는 한국 효행설화와 공통적 요소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제주도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학생들에게 지

역사회의 문학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중요한 작업이기에 설화의 일반적 특징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제주도적인 특성을 찾아내는데 주력하려고 한다.

제주도 효행설화를 통한 문학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전승현장과 연행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설화 작품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승되기 때문에 그 설화가 형상화 하려고 하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먼 곳의 동떨어진 환경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삶과 견고하게 밀착된 이야기라는 점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배가시키고 탐구해 보려는 의욕을 자극하는 긍정적 효과를 갖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아울러 타 지역에 대한 이해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수용하고 재창조하는 문화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해 준다.

제주도 효행설화 연구는 작게는 제주도 지역의 특성, 지역민들의 사고, 생활, 감정 등을 규명할 수 있으며 크게는 한국효행설화 연구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주도민들이 창작해 낸 문학작품들은 제주도민들만의 것이 아니다. 제주민의 삶은 한국인의 삶이요, 한국인의 삶은 세계인의 삶이다. 따라서 제주민의 설화는 세계인이 향유할 수 있는 설화가 될 수 있다.<sup>1)</sup>

효행설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크게 나누면 효행설화의 유형 분류 및 사상적 고찰<sup>2)</sup>, 전승 양상에 관한 고찰<sup>3)</sup>, 전승집단의 의식 구조를 다룬 연구<sup>4)</sup>, 지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효행설화에 대한 연구<sup>5)</sup>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1) 현승환, 「설화조사의 현황과 전망」, 『백록어문』 11집, 도서출판 역락, 1995. p.170.
- 2) 김동기, 「한국 효행 설화의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신능철, 「한국 설화에 나타난 효의 세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3) 최대욱, 「한국 구비 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권석환, 「효행 설화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영희, 「자식 희생형 효부 설화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김대숙,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 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6.  
한미옥, 「길들이기형 효행담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윤승원, 「효자 득약 설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4) 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4, pp.139-175.
- 5) 김선풍, 『영동지방의 효열설화문학과』, 『우리문학연구』 제3집, 우리문학연구회, 1978.  
이수봉, 『호서지방의 효열설화 연구』, 『홍익어문』 제7집, 홍익어문연구회, 1988.  
김영복, 『충남지방의 효행설화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정인모, 『경남지방의 효행설화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권영철, 「경북지방인의 의식구조가 효열행위로 나타나는 諸相研究」, 『여성문제연구』 제8집,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4.



이상의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본 결과 효행설화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설화의 문학적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 전승되는 효행설화도 효과 열을 함께 다루거나 유형 분류와 전승양상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효행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지역에 전승되는 효행설화에 대한 연구는 여타 지역과의 대비 고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효행설화의 본질과 특성 규명을 위해서라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 효행설화를 대상으로 문학 교육 제재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현재 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학은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인간이 누리는 정신문화의 산물이기에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구비문학 작품은 제주도민의 정신문화의 수준과 가치를 드러낸다고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효행설화를 대상으로 그 유형을 나누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이는 설화가 구비전승의 특성상 동일한 구술방법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만 기억하면 화자의 구술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설화 작품이 단형화하거나 장형화하기 때문이다.

서사의 구성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으로 이는 현대 서사문학을 분석하는 기본 요소가 되기도 한다. 고전 소설, 설화, 현대 소설이 같은 서사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 소설 분석법을 차용하는 것은 설화를 해석하는데 용이한 방법이 될 것이다.

설화적 공간에서 인물과 인물은 서로의 추구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갈등하고 사건을 해결해 간다. 이것은 사건의 복잡성으로 나타나지만 설화에서는 단순한 사건으로 단일한 구성 속에서 해결된다. 일종의 단편소설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화의 가치는 그 주제로 달라지는데 그 속에 담겨진 문학성이 좌우하게 된다.

설화의 유형이 설정되면 그것들이 어떻게 전승민들의 머리 속에 자리잡게 되었을까를 추적한다. 이는 설화를 구성하는 요소 즉 인물과 인물이 벌이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조적 양식을 구분하게 된다. 설화의 구성요건을 순차적으로 나누다 보면 한 없는 미궁에 빠지게 된다. 이는 그만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방법론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지만 결론 즉 주제 파악에는 같은 입장을 취

---

김성봉, 『경북지방의 효행설화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하게 된다.

효행설화처럼 효의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서는 어떤 설화를 논의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기에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된다. 인물이 어떠한 효를 행했는가 하는 것이 설화의 중심축이므로 효를 행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효를 받아들인 수용자의 의식은 어떠했으며, 효를 행하는 자의 의식은 어떠한가, 그것이 남기는 주제는 무엇인지 등 구성 요건의 핵심사항을 찾아야 한다. 이는 설화 속 제재의 대립적 요소를 통해 강조할 때 보다 두드러진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려 할 때 그 효의 강도가 강하다고 할 때는 효를 행한 결과 보답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효행 설화가 주는 가치이면서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효행설화의 가치는 구비전승되던 시기에는 그 자체로 교육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오늘날의 학생들은 설화를 통한 인성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초등학교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한국에서 한국민으로서 생활하는데 절대적이라 판단되기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인간의 기본 심정이라 할 수 있는 효행 관념을 설화를 통해 찾고, 그것을 국어과 교육 과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유발, 배경 지식의 활성화, 정서적 공감, 지역 문화에의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B. 연구방법과 범위

설화의 연구 방법으로는 발생이나 전파를 연구하는 역사지리학적 방법, 구조적 특성을 밝혀내는 구조주의에 의한 방법, 분포상태나 자료수집 상황을 통한 현장론적인 방법, 등장인물의 갈등양상이나 유형 등의 심리학적인 면을 연구하는 분석심리학적 방법, 전승 집단의 의식 고찰과 민속학적 관점으로 연구하는 방법, 문학적인 관점으로 연구하는 방법 등 다각도에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sup>6)</sup>

6) 장덕순,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2, pp.10-14.

이 연구에서는 위의 여러 연구 방법들 중 구조주의적 방법과 문학적인 관점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중점으로 적용하여 제주도 효행설화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효행설화는 효행전설과 효행민담으로 나눌 수 있다. 전설과 민담은 주인공, 시·공간적 배경, 증거물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데, 전설과 민담은 성격상 서로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서 확연한 구분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효행설화는 효행전설과 효행민담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제Ⅱ장에서는 제주도 효행설화의 전승양상과 수용의식을 살펴보겠다.

제Ⅲ장에서는 구비설화와 효의 실제담이 수록된 『제주충효열지(濟州忠孝烈誌)』 내의 설화와 비교를 통해 문학교육 제재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말하기·듣기제재로서의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효행설화를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수업모형에 적용해 보려 한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 7), 『제주도 전설』 8), 『제주설화집성』 9), 『제주의 전통문화』 10), 『제주의 민속』 11), 『한국구전설화』 12), 『남국의 전설』 13), 『백록어문』 14), 『제주도의 문화유산』 15)에 수록된 29편의 설화와 『제주충효열지』 16)에 수록된 82편의 실기이다.

이 연구는 제주도 효행설화의 문학성을 규명한 후 교육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 효행설화에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타 지방 효행설화와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9-1·9-2·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9)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 탐라문화연구소, 1985.

10) 제주도교육청 편,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 교육청, 1996.

11) 文化藝術課 濟州道誌編纂委員會 編, 『제주의 민속Ⅲ 설화·민속·속담』, 제주도, 1995.

12)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전라남도·제주도편』, 평민사, 1992.

13) 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67.

14)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창간호-21, 도서출판역락, 1986-2005.

15) 제주도, 『제주도의 문화유산』,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1982.

16) 제주도, 『제주충효열지』, 일신업셋, 1990.

## II. 전승양상과 수용의식

### A. 전승양상

설화의 전승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마찬가지로 그 하위 영역인 효행설화의 내용도 다양하고 설화의 수효가 많아서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효행설화의 유형을 모티브에 따라 분류한 사례는 더러 있다. 그 중에서 『한국구비문학대계』<sup>17)</sup>는 독특한 분류체계를 제시했는데 효행설화는 ‘바르고 그르기’에 속하면서 ‘바를 만해서 바르기’ 항목에 넣고 있다.<sup>18)</sup> 그러나 아르네 톰슨의 분류체계를 따르는 연구자들은 모티브로 구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덕순은 ①호(虎)와 효자 ②희생 ③규범적 효행 ④버린 딸의 효행 ⑤불효자의 개심 ⑥이적 ⑦기타 7항목으로 제시했으며<sup>19)</sup>, 최운식은 ①희생 ②이적 ③호감호 ④위기 구출 ⑤버린 딸의 효성 ⑥보은 ⑦우의(寓意) ⑧활친(活親) ⑨순종 ⑩재혼시키는 효 ⑪불효자의 징벌 ⑫불효자의 개심 ⑬사후의 효 ⑭효불효 등 14항목<sup>20)</sup>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법 역시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 중에서 어떤 것이 더욱 타당하

17) 조동일 외,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 부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에서는 1. 이기고 지기 2. 알고 모르기 3. 속이고 속기 4. 바르고 그르기 5. 움직이고 멈추기 6. 오고 가기 7. 잘되고 못되기 8. 잇고 자르기의 8가지로 대분류를 하고, 4. 바르고 그르기 항목에는 1) 바를 만하기 (1) 바를 만해서 바르기 (2) 바를 만한테 그르기 2) 그를 만하기 (1) 그를 만한테 바르기 (2) 그를 만해서 그르기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모티브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주제와 내용, 모티브 등을 종합하여 설화 수용자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18) (1) 바를 만해서 바르기 항을 설정하고 어려운 사정 있어도 가족 사이의 바른 도리 지키기라 하여 효자, 효부, 열녀들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효와 열을 이루는 이야기를 기본으로 한다. 양아들, 서자, 계모, 홀어머니, 친척, 정혼자, 애정관계의 기생 등이 자신들이 처한 불리한 처지나 입장에 불구하고 지극한 도리를 다하는 이야기도 여기 속한다. 또한 어려운 사정 있어도 세상 살이의 바른 도리 지키기라 하여 바른 행실 지키니 이적 일어나기 내용으로 주인공의 지극한 효와 열이 하늘을 감동시켜 부모와 남편의 병을 고치는 이적이 일어나고, 맹수와 이물까지도 감복시키는 이야기를 포함한다. 진실된 행동이 도적도 개심시키고, 죽은 후에 인도 환생하는 보상을 받기도 한다. 그 외로 사람에게 적선하고 보은(복)받기, 짐승에 적선하고 보은 받기 등이 설정되어 있다.

19) 장덕순, 『한국설화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0, p.27.

20) 최운식, 『심청전 연구』, 집문당, 1985, p.132.

고 유용한지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어느 것이나 모티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는 모티브 자체로는 그 기준 분류가 모호하기에 유형으로 확대하여 분류한 점은 특색 있다 하겠다.

효행설화의 유형 분류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설화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형화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sup>21)</sup> 그러나 한 인물의 효행에서 유별나게 강조되고 있거나 가장 특징적인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류하는 것은 효행의 여러 형태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 효행설화를 여러 가지 유형의 분류방법에서 최운식의 방법이 학생의 설화교육에 가장 적절할 것 같아 이를 따르기로 했다. 그 결과 정성을 다해 봉양하는 효 15편, 순종과 희생의 효 8편, 지성이면 감천형 효 3편, 효불효형(孝不孝型) 2편, 불효자의 개심형(改心型) 1편으로 유형을 나누었다.

## 1. 정성을 다해 봉양하는 효

가난 속에서도 자식으로써 부모에게 풍족한 음식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들어주는 내용들이다. 부모가 사망하자 살아 계실 때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 죽을 때까지 묘하(墓下)에서 지내는 경우, 어릴 때 상을 당하여 복상(服喪)하지 못함을 한탄하여 자라서 추복(追服)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정성을 다하여 돌아가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제주도 효행설화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대체로 내용이 단편적이고 단순하다. 이를 통해 효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주변에 있으며 특별한 사람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 윤리인 동시에 보편적인 실천 원리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효는 집안의 가난 구휼 및 인륜적 도리를 다함으로 인해 부모를 편하게 모시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는데, <고성 홍효자(洪孝子)><sup>22)</sup>, <효자 이씨><sup>23)</sup>, <홍노 오서자(吳庶子)><sup>24)</sup> 등이 이에 해당한다.

21) 曹喜雄, 『설화의 유형 및 분류』, 『한국 구비문학선집』, 일조각, 1982, p.2.

22) 현용준, 앞의 책, pp.60-61.

23) 김영돈 외, 앞의 책, pp.570-571.

24) 현용준, 앞의 책, pp.66-68.

<고성 홍효자(洪孝子)> 이야기를 살펴보면,

- A. 홍효자는 매우 가난하였으나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다.
- B. 부친이 병환으로 눕게 되자 침식을 잊고 구병에 힘썼다.
- C. 재력을 다하여 좋은 이부자리를 마련해 아버지를 편하게 모셨다.
- D. 매일 부친의 대변을 맛보면서(嘗糞) 병세를 살폈다.

<효자 이씨> 이야기도 아들이 아버지를 봉양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 A. 늙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 B. 아버지가 굶어 죽게 되자 가마니 속에 아버지를 모시고 등에 지고 다니면서 봉양했다.
- C. 사또가 순력 들다가 발견하여 그 자리에서 효자 완문을 써 주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볼 때,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서 가난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온갖 시련을 겪는다는 환부의 흡창(吸瘡), 환자의 상분(嘗糞)으로 병을 근심하는 어려움을 겪는 내용을 말한다.

<홍노 오서자(吳庶子)>의 이야기를 보면

옛날 서귀읍 홍노 오택(吳宅)에 한 서자가 있었는데 성산면 고성 남문집이라는 친족 집에 양자로 들었다. 생부(生父)의 집에 제사를 보려고 먼 거리를 한 해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다녔고, 어느 무덤을 소분해 주었더니 혼령이 제수를 마련해 주어 서자였지만은 적자와 동등하게 제사에 참배하게 되었다.

서자는 적자와 함께 집안에서 배례(拜禮)를 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참배(參拜)를 하던 때였다. 오서자도 제사 때가 되면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난간에서 참배하고는 그 대로 발길을 돌려놓아야 했었다. 오서자는 이런 뼈아픈 차별을 받는 처지요 또 양자를 가 버린 몸이니, 아니꼬운 꼴을 당하면서 생부의 집에 제사를 보러 아니 가도 될 법한

것이였다. 그런데도 오서자는 성산에서 흥노(현 동흥리, 서흥리)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매년 꼬박꼬박 제사 때마다 다녔다고 한다.

이것은 생전에 못다 한 자식의 도리를 참회하기도 하고, 생전의 은덕을 기리며, 사후의 복을 비는 전통적인 효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제례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애정이 넘치는 제례 행위야말로 우리고유의 효행사상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부모에 대한 생전의 효를 그대로 이르려고 하는 모습에서 단편적이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효행의 영속성을 보여준다.

## 2. 순종과 희생의 효

효의 실천을 위하여 자기 몸의 일부를 희생(자기희생)하거나 자식을 희생하였더니(타인희생) 기적이 일어나 부모에게 효도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는 부모의 병이 위중하여 약을 살 수가 없든지, 아니면 온갖 약이 무효할 때 많이 나타난다.

희생적인 효에서는 효행의 절대적 필요성과 실행의 어려움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성을 갖고 있다. 부모를 섬기는 도리는 자식을 희생하는 데까지 확대되는데 그 희생의 결과에는 보상이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효행이 어려운 만큼 그에 대응하는 댓가와 복이 크게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설화로는 <머리 잘라 시부모 생일 차린 효부><sup>25)</sup>, <박효자><sup>26)</sup>, <부모 위해 자식 버린 효자><sup>27)</sup>, <며느리의 효도><sup>28)</sup>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머리 잘라 시부모 생일 차린 효부>의 이야기를 보면,

- A. 옛날 대정현에 아주 가난한 선비의 집안이 있었다.
- B. 어질고 착한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다.
- C.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는 자기의 머리털을 팔아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려 드렸다.
- D. 시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춤을 추었다.

25) 진성기, 앞의 책, pp.32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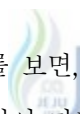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 1980, pp.26-27

27) 고석희, 『제주도 변신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p.72-73.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 1980, pp.638-644.

- E. 늙은 시아버지는 감격하여 엉엉 소리 내어 울고 말했다.
- F. 주위를 지나가던 암행어사가 자초지종을 듣고 상감께 고하여 시아버지에  
게 벼슬을 내리고 며느리에게 효부상을 내려 화락하게 잘 살게 되었다.

시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털을 잘라 팔아 생일상을 차려드렸다는 자기 희생형의 이야기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하여 머리털 하나라도 훼손하지 말아야 효의 시초라 하였으니 남성도 아닌 여성이 자신의 몸을 단장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머리털은 (당시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다. 부모의 봉양을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거나 자기의 몸을 끝내 버림으로써 적극적인 희생을 취하는 공신(供身) 효행의 유형이다. 자신의 몸에서 훼손할 수 있는 것은 머리털이나 손톱 발톱 같은 것이 있지만 몸의 일부를 자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효를 행한 사례도 있다.

- <박효자> 이야기를 보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A. 어머니가 위독하여 자귀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였다.
  - B. 어머니의 수명이 5일이나 연장되었다.
  - C. 효자라고 하여 효자비를 세우게 되었다.

어머니가 위독하자 아들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시게 해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효경(孝經)』에서는 효도의 시작은 부모가 물려주신 몸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손가락을 자르는 행위는 불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존재하게 한 부모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시 돌려 드린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자기희생의 효라고 할 수 있다.

- <시아버지 병 고친 며느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 A. 시아버지가 병이 나서 며느리가 병 구완을 하는데 백약이 무효였다.
  - B. 어디 가서 문병하니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이라고 한다.



- C. 서당에서 오는 아들을 가마솥에 넣고 삶았다.
- D. 어느 정도 삶아지고 있을 때 진짜 아들이 책보 들고 들어 왔다.
- E. 산신이 동삼을 보내 시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였다.

효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은 부모와 자기의 분화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미분성(未分性)이 심층(深層)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기의 분화독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고난과 불행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sup>29)</sup>

부모 봉양을 위해 자녀를 버리고 희생의 제물로 삼는다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이자 과장된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들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효행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효행의 이야기는 흥미와 더불어 교훈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사례의 실제 여부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승 주체들은 이 설화에 담긴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의미를 통해서 효에 관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설화의 내용이 과장되고 허구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설화에는 향유계층의 효에 관한 의식이 다른 어떤 효행설화보다도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며느리의 효도>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리면,

- A. 효자 내외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 B. 시아버지는 고개 너머 제자의 잔치 구경 가서 술을 많이 드셨다.
- C. 밤늦도록 시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 D. 며느리가 한밤중에 시아버지를 찾으러 고개 너머까지 갔다.
- E.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고개 길가에서 쓰러져 잤다.
- F. 호랑이가 시아버지를 해치려 했다.
- G. 며느리가 시아버지 대신 자기 아기를 호랑에게 던져 주었다.
- H.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와서 정성을 다했다.

29) 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1, pp.113-114.

- I. 시아버지가 아기를 보고 싶어 했다.
- J. 며느리가 거짓으로 꾸며 이야기했다.
- K. 시아버지는 거짓임을 알고 노여워하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 L. 시아버지는 손자를 구해 오라고 했다.
- M. 옆집 배서방이 아기를 구해 왔다.

자식 희생을 통해 효를 실천하려는 설화이다. 시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식을 호랑이에게 준다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이며 희생을 정당화하는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다. 호랑이에게 아들을 던져 준 인물은 며느리이다. 아이는 며느리가 낳아 기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착과 집념이 더 강하다는 점과 시부모에게 효도하기가 아들이나 딸 보다 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며느리의 효성은 대단한 것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호부의 태도를 응시하며 행동하는 호랑이이다. 슬 취해 쓰러진 시아버지 대신 어린 자식을 희생하는 효심에 미물인 짐승까지도 감화를 하여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교훈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다.

부모는 나의 몸을 형성하게 해 준 근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후의 효도보다도 생전의 효도를 더욱 중시한데서 기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아가시면 생전의 효도는 끝나는 상황이 되므로 부모의 삶을 최대한 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며느리는 자식을 죽게 할 상황을 만든 자기의 시아버지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시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희생형 설화는 교육적으로 소중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효는 무조건적인 희생의 효가 아니라 부모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받는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봉양의 효가 되어야 한다.

### 3. 지성이면 감천형 효

부모의 치병을 위해 자식이 지극한 정성으로 특효약을 구하게 되고 부모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이야기이다. 치병에 필요한 약이나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그 시기에 맞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많아 효자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통이 더욱 심하다. 약물을

구함에 있어서 불가사의한 이적(異蹟)은 합리적인 사고로는 설명될 수 없으므로 실천덕 목이 아닌 효행에 따른 효심이 보통 사람의 경지를 벗어난 신비로운 것으로<sup>30)</sup> 이해된다. <수월봉과 녹고물><sup>31)</sup>, <출천지효(出天之孝)><sup>32)</sup>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출천지효(出天之孝)> 이야기를 살펴보면,

- A.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가 있었다.
- B. 어느 여름날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어머니가 갑자기 감을 먹고 싶다고 했다.
- C. 효자는 감이 없는 줄 알면서도 하루 종일 감을 찾아 헤맸다.
- D. 날이 어두워지고 길을 잃게 되었는데, 효자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등을 대고 타라고 했다.
- E. 호랑이가 어느 외딴 집으로 데리고 갔다.
- F. 그곳에는 마침 제사였고, 감이 상에 올려 있었다.
- G. 제사를 끝내고 주인이 감을 대접했다.
- H. 감을 먹지 않고 썼다.
- I. 주인이 이유를 물었다.
- J.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 대답했다.
- K. 감을 더 주었다.
- L. 어떻게 감이 많으냐고 물었다.
- M. 주인은 어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감을 좋아하여 제사에 늘 쓰고 있다고 했다.
- N. 밖에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 O. 돌아와 어머니께 감을 드렸다.
- P. 어머니는 감을 먹고 병이 나았다.

어머니가 병들어서 먹고 싶어 하는 감을 구해야 하는데 한 여름철로서 주인공의 능력으로 구하기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설화의 내

30) 李相日, 『孝行倫理의 變異研究』,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제3·4집, 1974, p.210.

31) 진성기, 앞의 책, pp.228-230.

32) 김영돈 외, 앞의 책, pp.80-82.

용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적처럼 효자를 돕는 이적 호랑이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효의 최고 가치를 부여하고 효야말로 인간이 실천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는 효의 중심사상이 효행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효행이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효행 이적이 누구에게나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효자가 극한적 상황에서도 부모를 위하는 지극한 효성으로 모든 인간적 갈등이나 시련을 극복한 뒤에야 효를 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 4. 효불효형의 효

효불효형(孝不孝型)은 한 쪽에는 효요, 다른 한 쪽에는 불효라는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 상황을 모티브로 하고 전통사회의 윤리적 갈등을 주제로 한 유형이다. 효에 대한 직설적인 설화보다는 주제에 있어서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유형이다.<sup>33)</sup> <효자다리><sup>34)</sup> <김효자><sup>35)</sup>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효자다리> 이야기를 살펴보면

- A. 흠어머니가 외아들하고 둘이서 살고 있었다.
- B. 어머니가 밤에 몰래 흠아비를 만나러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 C. 어머니가 찬 냇물을 건너다니는 것을 알고 징검다리를 놓아드렸다.
- D. 아들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느라 놓은 다리가기 때문에 효자다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김효자> 이야기도 이와 유사하다.

- A. 젊어서 남편을 잃고 아들하고 모자간만 살고 있었다.
- B. 어머니가 남자를 그리워하며 찾아다니는 것을 아들이 알게 되었다.
- C. 썰물 때는 바위 줄기가 나타나고 밀물 때는 감추어지는 곳을 버선을 벗고 다니는 것을 알았다.

33) 장덕순, 『설화문학개설』, 삼우출판사, 1980, p.159.

34)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제주도 편, 평민사, 1992, p.208.

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 1980, pp.143-144.

D. 어머니의 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해 돌을 지어다가 다리를 놓았다.

E. 이런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제주목사에게 보고하여 효자비를 세우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에게는 효요, 작고한 아버지에게는 불효라는 복잡하고 모순된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 아버지에게는 불효겠지만, 이것은 살아 계신 어머니에게 아들이 할 수 있는 효의 실천으로써 평소 홀어머니를 염려하는 자식의 작은 효심에서 나온 것이다.

혼자계신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있어 물이라는 큰 장벽이 나타나는데, 이 장벽은 어머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 이 설화의 핵심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올바른 자세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당시 사회에서 부모의 도덕성은 가문과 자식들의 이해관과 직결되기 마련이므로, 자식으로서의 과부인 어머니의 허물을 고치기 위해 자식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지역사회나 가문에서의 위상을 중시하는 양반사대부 계층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편이 사회적으로 명분이 서는 편안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효의 실현은 굳어진 효 관념이다. 이 설화에서 아들은 바로 이런 굳어진 효 이념 대신 인간의 자연스런 성정을 긍정하였다. 설화 전승자들은 어머니의 태도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머니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 자식의 용기와 헌신에 박수를 보낸다.

효불효 설화가 제시한 효란 자식이 비록 사회가 정한 정언적(定言的) 규범은 이탈하였지만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한 지극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 때의 효란 곧 열린 도덕의 창조적 실현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개행(改行)은 우선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자식에게 노출되었다는 민망함과 수치심에서 기인했을 것인바,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도덕적 책임감을 새삼 느꼈던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자식들의 지극한 효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어머니는 사회적 압력에 의한 강제적인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에서 출발한 자발적인 선택인 것이다.

## 5. 불효자의 개심형 효

개심형(改心型)은 불효자나 불효하는 며느리에게 거짓으로 이웃 사람, 친구들에게 효행을 잘하는 것처럼 헛소문을 냄으로써 불효자 스스로 깨닫고 개과천선하여 효행을 잘 하게 하는 이야기이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효자><sup>36)</sup>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효자> 이야기를 살펴보면,

- A. 아들과 며느리가 홀로된 아버지를 홀대했다.
- B. 이장에게 가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참으로 효자·효부라고 칭찬했다.
- C. 이장은 효자비·열녀비를 세우자고 공문을 써서 마음에 들었다.
- D. 그렇게 소문이 나서야 아들 내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잘 모셨다.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기 위해 거짓말, 거짓행동 같은 것이 통용되고 있다. 효행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해를 주는 거짓은 용납될 수 없지만 이익이나 도움을 주는 위계는 그 당시 윤리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이 이야기는 부모가 좋아서 불효자를 효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불효자나 불효하는 며느리에게 거짓으로 이웃 사람, 친구들에게 효행을 잘하는 것처럼 헛소문을 냄으로써 불효자 스스로 깨닫고 개과천선하여 효행을 잘 하게 하는 이야기이다.

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 1980, pp.690-692.

【표1】 제주도 효행설화의 유형별 분류 37)

번호	유형	제목	주체	대상	출처
1	봉양	고성 홍효자	아들	부	설집/전설/민속
2	봉양	효자이씨	아들	부	설화집
3	봉양	효자고찬옥	아들	모	설집
4	봉양	홍노 오서자	양아들	부	탐라
5	봉양	효녀이야기	딸	부모	대계
6	봉양	열녀 김천덕	딸	부	문화
7	봉양	효자순낭자	딸	계모	설집
8	봉양	다슴애기	딸	계모	설집
9	봉양	신촌김택효부	며느리	시모	전설/민속/탐라
10	봉양	남군 열녀	며느리	시모	민속
11	봉양	명창 박효자	아들	모	설집
12	봉양	은혜받은 효자	아들	부	백록7
13	봉양	죽은 부모를 만난 효자	아들	부	백록8
14	봉양	효자이야기	아들	모	백록17
15	봉양	효자열녀이야기	아들	모	백록15
16	희생	머리잘라시부모생일차린효부	며느리	시부	탐라/전설
17	희생	부모위해 자식머린 효자	며느리	시부	대계/민속
18	희생	효자이야기	아들	부	백록2
19	희생	며느리의 효도	아들내외	부	대계
20	희생	효부이야기	며느리	시모	백록2
21	희생	형제 충효비	형제	부	대계
22	희생	효자 이영조	아들	부	백록16
23	희생	박효자	아들	모	대계
24	감천	수월봉과 녹고물	아들, 딸	모	남국
25	감천	고성고효자	아들	모	설집
26	감천	出天之孝	아들	모	설집
27	효불효	효자 다리	아들	모	구전/백록6
28	효불효	김효자	아들	모	구전
29	개심	부모가 만들어 놓은 효자	아들내외	부	대계

37) 유형은 정성을 다해 봉양하는 효는 “봉양”, 순종과 희생의 효는 “희생”, 지성이면 감천형은 “감천”, 불효자의 개심형 효는 “개심”으로 줄여서 기록함. 출처는 『제주설화집성』은 “설집”, 『제주도 전설』은 “전설”, 『제주의 민속』은 “민속”, 『남국의 전설』은 “남국”, 『한국구비문학대계』은 “대계”, 『白鹿語文』은 “백록”, 『한국구전설화』은 “구전”, 『제주도의 문화유산』은 “문화”로 줄여서 기록함.

## B. 수용 의식

설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구비전승되어 온 이른바 무문자 시대의 산물이다. 하지만 문자가 만들어지고 문헌에 기록되면서 이 설화는 정형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정형화하는 작자는 문자를 향유하는 일부이기에 설화는 계속 구비전승되거나, 아니면 정형화된 문헌 설화가 다시 구비전승되는 과정을 밟는다. 현대에 이르면 그 설화는 문헌에 정착된 채 화석화하기도 한다. 『제주충효열지』<sup>38)</sup>는 화석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는 구비전승자료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문헌 소재 설화를 비교의 대상으로 넣어 그 세부적인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구비전승하는 향유계층의 효행설화 수용의식을 살펴보려 한다.

### 1. 현실 고난 극복의 의식

제주도는 지리적·기상적 조건이 농업에는 불리한 고장이었다. 이를테면 토질이 화산회토(火山灰土)로서 척박한 땅인데다가 돌과 바람이 많은 풍토다. 게다가 ‘섬’이라는 조건은 자급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으니, 제주도민의 경제적 조건은 자연히 가난을 면할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것은 식생활이었다. 풍토적 불모성에다가 때로는 관원들의 수탈, 때로는 천제지변로 인한 흉작 때문에 식생활의 안정마저 여의치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제주사람들은 가난으로 나타나는 고난에 한스러움과 좌절 없이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효행설화에 잘 드러나 있다. 제주도 효행설화 중 ‘하늘의 내린 효(出天之孝)’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예를 통해 파악해 보자.

- A. 옛날 어느 곳에 효자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결여)
- B. 여름철에 어머니가 병이 나서 감이 먹고 싶다고 했다.(위기)
- C1. 효자는 감이 없는 줄 알면서도 하루 종일 감을 찾아 헤맸다.(방법의 강구)
- C2. 효자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제사집으로 안내하여 감을 얻었다.
- D. 어머니가 감을 먹고 병이 나왔다. (위기의 제거)

38) 효와烈的 기념비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忠義篇 41편, 효자 82편, 열녀(忠烈포함) 122편 등 총242편이다. 이 중 효자 기념비에 관한 내용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 E. 효자는 보상을 받았다.(결여의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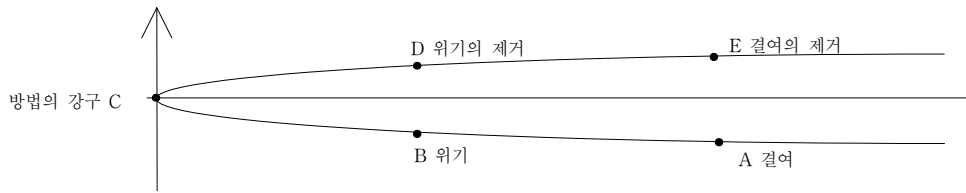
효자가 효를 행하게 되는 계기가 감을 먹고 싶다는 어머니의 욕구를 채워 들이려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다. 즉 효의 주체와 효행의 대상 사이에는 감이 등장한다. 감은 늦가을에 수확하는 과일이다. 그런데 한 여름에 감을 먹고 싶다고 하니 구할 수가 없다. 마치 한 겨울에 딸기를 먹고 싶다고 하여 딸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늦가을에 감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한 여름에 어머니가 감을 먹고 싶다는 것은 ‘위기’임에 틀림없다. 자연의 섭리에 도전하면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효자가 어머니를 위해 하루 종일 감을 찾아 헤매는 과정은 이야기를 듣는 청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아무리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자연과 도전하여 이길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은 ‘초월적 힘’이다. 장자못 전설에서 인간의 죄를 징치하는데 부처님의 힘을 빌고 있듯이 설화에서는 종교적 초월자가 등장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호랑이가 등장하여 감을 구해야 하는 ‘결핍’ 상황을 해결해 준다.

호랑이는 효자를 등에 태우고 제사집으로 안내한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린 감을 효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죽어가던 어머니를 살리게 한다. 이 역시 늦가을에 생산되는 감이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감은 계절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는 이야기 속 소재인 감을 꾀감으로 변환시킨다. 이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보관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절을 잊고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제사 역시 효의 관념이 없다면 지낼 수 없는 것이기에 제사상에 꾀감을 올린다는 것은 늦가을에 구할 수 있는 감을 대신한 것으로 꼭 같은 감이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은 조율이시(棗栗李柿)라 하여 감이 정해졌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부모가 자신으로 하여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가를 상징하는 과일이기 때문이다. 감 열매를 맺고 난 나뭇가지를 꺾어 보면 가운데가 검정으로 물들어 있는데 이는 자식을 기르면서 가슴이 타서 그렇다는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감을 올린다고 한다.

따라서 효도의 대상자가 감을 원하는 것이나 효자가 이를 구하는 것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소망을 들어주었으니 그것

은 효의 완성이며, 이를 인정하여 나라에서 효자로 인정하였으니 ‘결핍의 제거’라 할 만하다.

이처럼 효자가 효도를 행하여 마무리를 짓기까지 감이라는 소재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는 반드시 효자가 아니라도 감을 먹고 싶어하는 자에게 제공자가 호랑이와 같은 초월자의 힘을 빌어 제공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생성될 수 있다.



이 효행설화는 A(결여)→B(위기)→C(C1,C2)(방법의 강구)→D(위기의 제거)→E(결여의 제거)와 같이 나타났는데, C(C1,C2)의 방법의 강구를 전환점으로 전반부에는 문제의 제기, 후반부에는 문제의 해결 쪽으로 이야기가 진전되는 설화이며 A와E, B와D가 서로 대칭을 이루는 반전구조를 이루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식은 미하이 포프(Mihai Popp)가 <병사로서의 소녀>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석, 제시했던 도식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미하이 포프의 연구는 프로프(Propp)가 마법담의 분석을 통해, 그 기능들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데 대한 보완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능들이 단순히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상호 변용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던 것이다.<sup>39)</sup>

A는 이야기의 발단부로 배경에 해당한다. ‘옛날에는 살 수가 어서, 살 수가 어서, 하도 어려워난’ ‘위낙 가난해 가지고’ ‘흉년이 들어 너나 할 것 없이 굶주림이 심했다’ ‘가난한 처지에 아버지는 맹인이고 어머니는 다리병으로 움직이지 못했다.’와 같은 예가 그것이다. 뒤이어 전개되는 효행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서두에 그럴만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상황이 심각할수록 효자의 효행은 더욱 값지고 빛나기 때문이다.

효자의 가정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극빈하여 식사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이고, 홀어

39) 김화경, 『한국설화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7, pp.96-97

머니나 홀아버지로 어느 한부분이 결여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매우 불우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왜 가난한가'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태의 주요 동인이 되는 '가난'을 문제로서 부각시키지도 않는다. 가난한 생활이라는 상황이 그냥 주어져 있을 뿐, 그 실제적인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가난한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져 있는 현실일 뿐, 그것을 초래한 실제적 이유는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극한 효행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이면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이 부분은 시대적 삶의 여건을 형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효자는 부잣집에서도 나올 수 있고 가난한 집에서도 나올 수 있을 터인데 한결같이 극빈한 가정만이 설화의 가정적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고 부모가 함께 살아있고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도 효자가 있을 터인데, 왜 결손 가족이 대부분일까? 이것은 발단부에서 결여의 정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효자의 효성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홀로된 어머니가 병이 난 것은 결여된 상황에서 효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참담한 상황이므로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당시 민중들의 사회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효는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정신적인 면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더라도 마음이 괴롭고 근심에 싸여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B는 이야기의 전개부분으로 위기이다. 어머니가 뜻밖에 병이 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약(감)을 요구하는 것은 가뜩이나 결여된 상황에서 효자에게는 큰 시련이자 위기이다. 가난은 질병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는 것이니 영양실조와 비위생적 여건 속에서 병이 생기고 좋은 약을 서둘러 쓰지 못함으로써 병세는 더욱 악화된다. 또한 어머니가 요구하는 약(감)은 단순히 물질적 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이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많은 약 중에 하필이면 계절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희귀물을 요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가?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은 물질이지만 물질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이 물질은 지극한 효성의 상징이자, 효의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는 방법의 강구이다. 효자는 어머니가 요구하는 희귀물을 구하기 위해서 갖은 시련을 겪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효성은 더욱 강해진다. 효자는 혜택 받지 못한 현실적 여건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좌절해 버리지 않고 극복하려는 강한 집념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바로 제주인의 강한 현실 고난 극복 의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효를 실현하려는 효자의 효성에 공감하여 호랑이가 원조자로 등장한다. 호랑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호랑이는 예로부터 설화에 많이 등장하고 우리 민족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로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등 수많은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나타난 우리 민족들이 가졌던 호랑이에 대한 인식은 호랑이를 동물의 왕으로 천하에 거칠 것이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며, 매섭고 용감한 짐에서 경외하였으며 원시 종교적인 면에서는 신의 사자로서 숭앙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또 효자를 개인이라고 본다면 호랑이는 자연 또는 우주를 주재하는 천신, 약(감)을 제공한 집은 효자가 속해 있는 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효는 개인의 윤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집단의 윤리이므로 실천해야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D에서 어머니는 약을 복용하고 병이 낫는다. 어머니가 요구하는 약제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계절적으로 구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효자는 자기의 힘과 원조자의 도움으로 마침내는 약제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는 약(감)을 복용하고 병이 낫는다.

일반적으로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을 치료하는 양상은 의원이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하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처방을 알아보고 치료를 한다. 그리고 그 처방으로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머니 스스로에 의해서 처방이 제시되며, 어머니는 스스로 요구한 물질을 복용하고 예외 없이 완쾌된다는 신비하고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이한 양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머니가 요구하는 약은 물질적인 치료약이 아니고 지극한 효성을 상징하는 정신적인 치료약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요구하는 약은 금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기가 지극히 어렵거나 효자의 희생적인 결행이 요구되는 것들이다.

E에서 어머니는 효자의 지극한 효성의 대가로 획득한 감을 먹고 드디어 병이 낫고, 효자는 동네와 고을에 이름이 나서 보상을 받는다. 이 단락에서 사람이 부모에게 지성으로 효도를 다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권선징악적 사고와 인간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이나 불행은 지성을 다하여 노력하면 마침내 극복할 수 있고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낙천적인 민중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개인의식과 가족공동체 의식

효행설화는 가정을 배경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효행주체는 주로 아들, 며느리이며 딸이 효행주체가 되는 사례는 아주 적다. 이것은 며느리의 경우 아들과의 결혼이라는 인위적인 관계에 의해 얻어지는 환경상의 이유로 오히려 출가를 하게 되는 딸의 효행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딸이 출가를 하게 되면 친정과 격리하여 사고하는 관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무속신화 중 삼공본풀이는 딸과 며느리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가난한 부부가 딸 셋을 낳고 부유해진다. 누구복에 사느냐는 부친의 물음에 자신의 복에 따라 산다고 대답한 딸에게 그러면 너 자신의 복대로 살아 보라고 쫓아낸다. 딸은 마를 파서 살아가는 가난한 마통이를 만나 혼인을 하고, 그의 일터에서 금을 발견하여 순식간에 부자가 된다. 자신이 축출 후 몰락한 친정부모를 위해 거지잔치를 열고 부모를 만나 자신이 삼공신(전상신)임을 알린다.

이러한 삼공본풀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친정에서는 딸 덕분에 부자가 되었지만 그녀가 축출된 후는 친정이 몰락하고, 시집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설화가 주는 핵심이라 하겠다. 이는 딸의 소속 집단이 친정이나 시집이나에 따라 부의 힘이 이동함을 보여 주는 것인데, 효행 설화에서 딸의 효행이 드러나지 않고, 며느리의 효행이 강조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행해지는 효는 어떤 소속 집단에서 벌어지는 윤리의 문제를 다루는가에 대한 해명인 셈이다.

대가족제도와 가부장제의 장자상속이라는 사회제도에서는 한 가정 안에서 최고의 권위와 권한은 가장, 즉 아버지가 가지게 된다. 가족구성원들은 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존경과 사랑으로 윗사람을 섬겨야 하도록 가르쳐진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

지는 자기를 낳아 길러 준 생명의 창시자요 은인이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의 가족의식은 강한 가부장권에 의해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행사되어 아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관례이다. 곧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의 수직적·종속적 권위구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위구조 하에서 여성이 설 수 있는 자리는 그만큼 축소되고 왜곡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가부장권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가족공동체 의식이 강요되고 유지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가족은 부부간에 수평적·평등적 구조를 이루어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이 점은 가족공동체로서의 의식보다는 개인의식이 우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개인의식은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약하기 때문에 자연히 갈등의 정도 또한 미약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 사람들은 가족공동체보다는 개인의식이 우선시 되는 경향은 자녀들의 살림 규모가 커지고 부모 가족이 축소되면 가족 규모가 큰 안채를 내주는 것은 세대를 우선하지 않으려는 제주인들의 합리적이고 실리적이며 현실지향적인 의식구조의 반영인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식은 결국 제주인의 자기 정체성과 자주성, 자립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 효행설화에서 며느리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전개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전통사회에서 가정 내의 여성의 권리는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모든 중요한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으며 여자는 아버지, 남편, 아들이라는 가장의 뜻을 무조건 따르도록 교육되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추상적인 관념과는 달리 가정안의 일상사에서는 여성이 가진 역할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아들 못지않게 며느리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나날은 집안에서 먹고 입고 자는 일상적인 일들로 짜여져 있고 이 같은 의식주를 담당하는 역할은 일차적으로 한 집안의 주부인 며느리가 맡고 있다. 남편이 밖에 나가 생업에 종사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아내가 전 가족을 위해 살림을 꾸린다. 이 같은 여성의 역할로 실제의 삶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담고 있는 효행설화에서 부모가 자손으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하는 관건은 며느리에게 달려 있으므로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며느리를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감으로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 효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교육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딸은 이미 남의 식구가 되었고 시가의 살림을 책임 맡고 자신의 시부모를 섬기도록 역할지워졌기 때문에 친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며느리보다도 불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는 풍수설화에서 엿볼 수 있다.

딸은 친정아버지가 지관이었으니 어련히 자신이 누울 자리를 마련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가 한 날 한 시에 돌아가셨다. 딸은 친정아버지가 누울 자리에 가서 물을 한 허벅 부어두고 오빠들에게 친정 아버지를 물통에 매장하려 한다고 야단을 치고 다른 곳에 매장토록 한 후, 자신의 시아버지를 그 자리에 매장하였는데, 그 후 오빠들은 망하고, 딸네는 잘 되었다고 한다.<sup>40)</sup>

이것으로 보아도 아들과 부부관계에 있는 며느리는 아버지의 묘소를 잘 모시려고 애를 쓰지만 딸은 혼인을 하고 나면 친정보다 자신이 속한 시집의 번영을 위해 애를 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딸과 며느리에 대한 관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며느리는 자신의 역할이 시부모를 받들도록 자리 매김 되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남편도 없이 홀로 된 젊은 며느리가 어쩌면 가장 먼 관계인 시아버지께 지극한 효성을 바치는 설화의 내용은 그만큼 며느리가 가지는 가정 안에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효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집안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 즉 부모가 효성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는 가족간의 역할과 기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효행설화는 가정을 배경으로 가족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초점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부모의 입장과 자식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진술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효행설화 유형군 가운데 대부분의 유형들은 이야기를 부모의 입장에서 서술한다. 이것은 효성이라는 행위가 칭송하고 고양하여야만 될 가치이고, 주로 받는 쪽에서 더 관심이 크고 실제 자료의 제보자들이 40대 이상이고 특히 60-70대에 몰려

40)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편, 『제주도부락지Ⅳ』,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탐라문화총서(10),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1, p.282-283

있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효는 절대적인 윤리 규범으로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의무였다. 결국 전통사회의 가족에서는 부모 자녀간에 효 윤리의 절대성 때문에 세대간 갈등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가족의 형태가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됨에 따라, 가부장의 권위약화, 가정의 불안정으로 인한 자녀사회와의 문제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의 기본원리인 민주적 평등의식이 가정 내에 정착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녀 교육상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또 하나 자녀 교육적 측면의 문제로서는 부모의 사회 진출에 따른 자녀의 고독감, 상실감, 애정 결핍 등을 들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적게 하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긴밀한 인간관계의 유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축소시킴으로써 전통적 가족 구성원의 밀도 있는 가족 질서의 유지나 인간 관계를 소홀히 한다. 이로 인한 애정 결핍이나 관심의 소홀은 청소년 문제의 한 요인이 되며, 또한 자녀들의 동일시 대상의 부재를 초래하여 자녀의 역할 모형 설정에 혼란을 가져오게도 한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는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부모의 가족주의, 권위주의적 성향은 자녀의 개인주의 및 민주적인 태도와 갈등을 일으키며 이는 또한 부모 자녀간의 가치관, 생활 감각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의 문제로 귀결된다. 핵가족 제도하에서 부모 자녀관계는 더이상 종속적이 아니며, 자녀로 하여금 일방적인 복종과 효도를 강요하는 방식은 통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 III. 문학교육 제재로서의 활용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과의 교육 내용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나누고 이 순서에 따라 국어과의 성격에 대해 서술해 놓고 있다. 이 중 문학 교육의 목표는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을 수용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심미적 정서를 기른다’로 설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문학 교육의 방향성을 알려 준다. 이것은 문학 작품속에 담긴 남의 삶을 통해 자아를 의식하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효행설화는 교훈성이 강하고 단순한 미적 감흥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게 효의 본질적인 문제와 인간적인 문제를 다양한 문학적 형상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감동의 폭을 넓히고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제주도 효행설화의 문학적성과 구비문학적 특성을 활용한 교육적 측면으로 살펴보겠다.



#### A. 서사와 문학적성

제주도 효행설화는 실제와 같은 허구적인 이야기로 구성된 문학작품이다. 이것이 오랜 세월을 두고 구연하고 전승하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야기가 갖는 내용상 흥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야기의 구연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교육적 효과 역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효행설화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구비문학 작품이라는 점에서 실제 존재하였던 사례들을 기록해 놓은 『제주충효열지』와 구비전승되는 설화를 대상으로 인물, 배경, 서사전개, 언어 표현면으로 나누어 작품이 갖는 문학적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인물

제주도 효행설화와 『제주충효열지』에 등장하는 효행주체와 효행 대상의 등장 인물

별 현황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주를 이루었다. 이것을 볼 때 등장 빈도가 많은 사람이 좀 더 밀접한 관계로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효행주체는 효를 행하기 위해 태어난 인물처럼 효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윤리적 인간형으로 설정되어 있다. 효도를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치던 전통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행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살아 있을 때에는 구하기 어려운 약을 구해 오기도 하고, 죽어서는 무덤에 가서 시묘살이를 하는 것이 효자의 도리라 한다. 효가 퇴색해 버린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억지스럽지만 효의 실천이 강조되던 전통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 척도요, 인간의 도리였다.

효의 실천은 남자만의 의무가 아니다. 자식이라 할 때 딸보다 아들을 중시하는 것은 조선조에 들어서 나타난 결과이다. 제주도의 출산신인 삼승할망본풀이에 따르면, 생불꽃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잉태를 시키고 출산을 시키는데 ‘아기 짐지’라 하였지 아들 딸을 구분하여 짐지한다고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효의 발현에서도 아들 딸을 구분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식을 혼인시킨 후,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단계에서 자식에게 의지하는 부모에게는 딸보다는 아들이 중심이며, 며느리 역시 새로운 집안 구성원이 되면 시부모에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설정된다. 따라서 며느리의 효는 아들의 효와 같이 취급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 효행설화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따로 등장하는 빈도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효행에 있어서는 아들의 등장 빈도가 월등하게 많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실적으로는 피붙이가 아닌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헌신적으로 효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설화 속에서의 며느리의 모습은 현실과 반대로 적극적이며 과장되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희생하는 모습을 그려 이야기를 듣는 며느리들로부터 이러한 효를 끌어내려고 했을 것이다. 즉 효행설화를 통해서 효를 권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효행설화의 효행주체는 주로 아들, 며느리이며 딸이 효행주체가 되는 사례는 아주 적다. 이것은 며느리의 경우 아들과의 결혼이라는 인위적인 관계에 의해 얻어지는 환경상의 이유로 오히려 출가를 하게 되는 딸의 효행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딸이 출가를 하게 되면 출가외인이라하여 친정과 격리하여 사고하는 관습이 반영된 것으

로 보인다.

효행대상에 있어서 효행설화와 『제주충효열지』에 등장인물은 하나같이 힘없이 병든 모습으로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극적인 인물로 아주 나약한 인간으로 나타난다. 이 설정은 효행주체가 자기 앞에 닥친 고난이나 불행에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효를 실천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윤리적 인물임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

【표2】 효행설화와 『제주충효열지』의 등장인물간의 관계와 등장빈도

인물과의 관계		효행설화	효열지
주체	대상		
아들	부	6	27
아들	모	9	25
양아들내외	부		1
아들	부모		20
며느리	시부	2	
며느리	시모	3	
아들내외	부	2	2
딸	부	1	
딸	부모	1	
아들	계모		1
아들·딸	모	1	
형제	부	1	
서자	부	1	
딸	계모	2	
아들	부모·계부		1
아들	부모·조모		1
손자내외	조부		1
손자	조부		2
아들	부모,시부		1
계		29	82

설화에서 인물은 설화 자체를 성격지우는 역할을 한다. 고전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천

편일률적이라는 점도 설화가 소설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물의 성격은 평면적인물이요, 전형성을 띠는 것이다. 효행설화에서는 효행의 주체는 선인으로 자기희생적 인물로 부모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인물로 제시된다. 고전소설이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확대되지만 설화는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의 성격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현대소설에서도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서사작품에서 인물은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 하겠다.

## 2. 배경

설화에서 배경은 설화 작품 내의 행동과 행동의 주체에게 시간적, 공간적 세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작품 전체에서 사건이 벌어질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설화에서는 등장인물과도 관련이 깊다.

또한 설화에서는 배경에 따른 세밀한 소재들은 화자의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기에 더욱 중요하다. 고전소설에서는 조선국, 중국 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시간적 배경은 인조조 또는 세종시절 등으로 외연의 범위를 무한정히 포함하여 과거의 한때를 서술할 뿐이다.<sup>41)</sup>

『제주충효열지』에 나타나는 효행설화를 정리해 보면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효자로는 문방귀(文邦貴)를 들 수 있다. 그는 태종 6년(1406년) 부친상을 당하자 3년을 수분하며 상제는 가례를 지켰으므로 이를 모범으로 하여 그 후 10여 인이 이를 따랐다고 하며, 태종 13년(1413년)에는 도안무사 윤림이 아뢰어 정표하였다. 같은 시기에 고득중도 정표되었는데, 처음으로 부친 상을 당하니 묘소 곁에 여막을 짓고 처음으로 3년의 복제(服制)를 행하여 한 고을을 감복시켜 그 효행이 도안무사 윤림에게 알려지고 드디어 태종 13년(1413)정표된다.<sup>42)</sup>

이것이 문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시기의 효자 기록이다. 그 시대 이후로 인조2년(1624)에 이르러 오몽렬, 1634에 진대석이 등장하니 근 180여 년 동안 효자의 기록이 없는 셈이다. 이는 실제 효자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록의 인멸이라

41) 정한숙, 『소설기술론』,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p.163.

42) 太宗實錄, 續修三綱錄, 제주도, 『濟州忠孝烈誌』, 1984, p.77 재인용.

보인다.

충효열지에 따르면 19세기에 효자 열녀가 다수 등장하는데, 이는 효행설화가 왜 전승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 문헌은 탐라지, 탐라기년, 남사록, 속수삼강록, 왕조실록, 향토지 등인데 전체 83명 중 58명이 속수삼강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 속수삼강록은 1776년(정조 즉위년)부터 83년 사이에 과거를 치르는 해마다 각도에서 충효열 삼강에 뛰어난 사람을 가려 기록해 놓은 책인데, 8도에서 이를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서 다시 왕에게 아뢰어 상을 내렸는데 후에 속수삼강록 등의 이름으로 속간되었다.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삼강록을 간행하였다.<sup>43)</sup> 이런 이유로 19세기에 50여명이 추천되었다는 것은 국가에서 효를 강조하여 통치이념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보아 정의, 대정, 제주시의 효자가 각각 비슷하게 전승되고 있어 이로 보아도 행정 구역상 큰 제주목에서만 효자 열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대정현, 정의현에서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게 추천 심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구전설화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충효열지의 내용과 구전설화의 서두부 내용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홍달한은 정의현 사람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어머니가 늙으니 군교를 사직하고 돌아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병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어머니에게 피를 먹이거나, 똥을 맛보아 병의 차도를 증험하였다. 숙종이 돌아가자 통곡하여 이웃을 감동시켰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 시묘했으며 이어 70이 된 나이임에도 아버지를 위해 추복(追服)하였다.

구비전승되는 고성 홍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효자의 성격을 보면 『성품이 어질어 가지고, 남과 싸울 줄 모른 분』, 『고기를 낚아도 바늘로 낚고, 자신이 노력이 없이 얻은 것은 취하지 않았다 한다.』고 하여 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의 성격을 강조한다.

43) [http://kr.ks.yahoo.com/service/wiki\\_know/know\\_view.html?tnum=46019](http://kr.ks.yahoo.com/service/wiki_know/know_view.html?tnum=46019) 속수삼강록 참조.

이러한 배경의 대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문헌에서는 시간과 공간 배경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증거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효도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강조하는데 있다. 그러나 구비전승에서는 주인공의 효도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효행설화가 전설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민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고찬원은 애월읍 고성리 사람으로 정병(正兵)이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섬기는데 효성을 다하였다. 그가 입번하게 되면 어머니가 불편하므로 엮어서 성안에 오고 퇴번(退番)할 때도 엮어서 마을로 돌아간 뒤 항상 어머니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여쭙어 얻어다가 봉양하였다. 이 사실을 조정에 아뢰어 숙종 25(1699)에 정표되었다.

(續修三綱錄 耽羅紀年 增補耽羅誌)

고성 고효자로 전해지는 설화에 따르면, 고찬원은 살림이 어렵고 어머니께서 앓게 되자 어머니를 업고 다니면서 병을 치료했다. 이 사실을 제주목사가 알고서는 조사해 보려고 사람을 보냈다. 그때 어머니를 모시다가 제주목에서 온 사람을 위해 일어서 인사를 하는 바람에 천효가 아닌 인효밖에 되지 못했다.

효행설화의 배경을 보면, 공간적으로는 시간적 배경을 보면 구체적인 시대가 나타나지 않고 막연하게 '옛날'로 표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공간적 배경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빈궁한 환경이다. 이것은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난하므로 영양실조와 비위생적 환경으로 병이 생기고 좋은 약을 서둘러 쓰지 못하매 희귀한 약물을 구하게 되므로 가난은 곧 질병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된다.

### 3. 서사전개

효행설화에서는 한 사례에서 한 가지 유형만 존재하였는데 『제주충효열지』에서는 이와는 달리 복합적인 유형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희생에 있어서 단지(斷指)만 하지 않고 단지(斷指)+단발(斷髮), 단지(斷指)+감천이적(感天異蹟), 단지(斷指)+할고(割股) 등 한 사례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유형이 혼합형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다.

정의현의 현운경은 아버지의 병이 위급하자 지혈로 몇 시간을 연명하게 하였고, 현원상은 병든 아버지의 똥을 맛보며 병세를 가늠하였다. 이종응은 아버지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강가에 가서 하느님께 축원하였더니 잉어가 올라와 이것을 잡아다가 드러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진달홍은 어머니가 대소변이 막히는 난치병인데 백마를 탄 노인이 와서 사람의 피를 사용하면 효험이 있을 것이라 하기에 왼 손가락을 잘라 피를 화합하여 드리니 대소변이 통하고 목숨이 이어졌다고 한다.<sup>44)</sup>

이러한 사실만을 보아도 『제주충효열지』는 그 전개에서 비현실적인 사실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도적 표현들을 엿볼 수 있다.

효행설화에서는 시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아들을 삶아서 공양하는 사건이나 호랑이로부터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아기를 던져 희생하는 내용, 효자의 효성에 감동한 호랑이가 도움을 주는 내용 등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 사건들이 있으나 『제주충효열지』에서는 단지(斷指), 할고(割股)의 방법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은 연장된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효행설화와 『제주충효열지』의 서사전개에 공통점이 많이 존재한다. 효행주체의 환경이 매우 가난하며, 그 가난과 인간이라는 한계에 도달하여 효를 이루는데 많은 고난이 나타난다. 또한 부모가 약과 음식을 원할 때 계절에 맞지 않는 것을 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어 하늘과 짐승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되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효행설화와 『제주충효열지』의 결말을 보면 효행주체의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의 병을 치유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해피엔딩의 결말이 대부분이다. 『제주충효열지』에서는 부활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부모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하였고 모든 결말이 해피엔딩이다.

또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효행설화와 『제주충효열지』에서 감천이적(感天異蹟)과 감수이적(感獸異蹟)이 일어났는데, 내용 전개 과정이 매우 흡사하다.

44) 제주도, 『제주충효열지』, 일신업셋, 1990, p.93.

어려운 상황에서 효를 행하였더니 기적 또는 보상이 주어지는 내용은 흔히 볼 수 있다. 효행에 대해 상을 받고 간혹 기념비를 세워주기도 하고 나아가 벼슬을 얻어 명예까지 얻는 결말을 볼 수 있다.

#### 4. 표현

『제주충효열지』에서는 실제 있었던 기념비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어서, 매우 객관적인 표현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효행설화는 흥미를 유발시키고 감동을 주며 효를 강조하기 위해 “아이고, 이런 사름이 어디 시냐 그 효부 아주 좋은 사름이 되고 그춤 효성이 지극했다”와 같이 반복법과 과장법으로 주관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조면에서의 발단, 경과, 결말로 나누어 발단부분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효행설화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라는 등의 표현이 주로 등장한다. 『제주충효열지』의 발단부분은 효행주체의 실명이 등장하여 “김칭은 김녕리 사람이며 향리로서 어머니가 머리의 종기로 기절하였다.....”라는 등 사실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이처럼 화자와 청자와의 사이에서 효행의 사실을 듣고 진실이라고 믿고 이야기하고 청자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단정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효행설화는 인물 전설이므로 그것은 사실성을 강조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마련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설은 서서히 역사화하여 지역성을 띠면서 지역의 인물로 존경을 받게 된다.

또한 효행설화를 구연할 때 화자는 이야기의 서술 절차를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는다. 서술 절차가 자유롭고 다만 효자가 있어야 하며, 그의 효행 사례가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진실하다고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다.<sup>45)</sup>

문체상의 특징에서 효행설화는 구연자가 청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설명과 서사적인 기술방법을 주로 쓰고 있으며, 대화형식과 인용법도 자주 사용되었고, 다양한 제주도 방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제주충효열지』는 객관적 사실을 서사형식으로 기록 설명한 것으로 효행주체와 대상을 밝히고 사건과 사건을 해결하는 효행이 간략

45) Linda Dégh and Andrew Vázsony : Legend and Bilief, Edited by Dan Ben Amos, Folklore Genres(Publication of American Folklore Society, Bibliographical and Special Series Vol.26, 1976), pp.110-111. 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1, p.79 재인용.



하게 쓰여 있다

『제주충효열지』는 사례를 소개하는 객관적인 서술을 하는데 비해, 효행설화는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 전반부에는 제3의 시각으로 구연하다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점점 이야기에 개입하면서 서술한 후 다시 구연자의 역할로 돌아오는 액자형 서술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액자형 서술방법은 청자들에게 효에 대해 보다 사실적으로 서술하여 교훈을 남기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효자의 효행을 바라보는 제 3의 논평도 효자의 효행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고 하늘에서 내려준 효자라 칭송하며 부러워하였다. 이러한 효행이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였으며, 효자의 효행에 대해 여러 권의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다.

효행설화와 효행 기념비는 효를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효자들의 효행을 높이 기리며 이를 모방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효행을 바라보는 제 3의 시각은 효자에게 찬사를 보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 효행설화에서는 구연자의 개인적인 논평이 많은 효행설화에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효자라고 한 것이 참 지금도 충효사상이 있고 효를 중시한다 하지만 그때에는 부모를 잘 공양하고 부모의 명령을 조금도 거역하지 안해서 그리해야 효자지

이처럼 이야기를 구연하면서 마무리 할 때 효자의 효행에 대해서 주관적인 논평을 함으로써, 효행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

효행을 바라보는 구연자의 의도는 효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효야말로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실천해야 하는 규범이라는 효지상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다. 반면 청자는 내가 못다한 효를 설화 속의 주인공이 실천함으로써 대리만족을 통해 심리적 보상을 받게 된다.

## B. 듣기·말하기 제재

효행설화는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를 통해 만남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신체적·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에게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한 전인적 인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구연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어교육의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에 중요한 몫을 한다.

듣기·말하기가 얼마나 밀접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지 A.Ruind가 제시한 듣기와 읽기의 차이점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sup>46)</sup>

【표4】 듣기 행위와 읽기 행위의 차이점

차원	듣기행위	읽기행위
매체	음성언어	문자 언어
상호작용	상호작용 있음	상호작용 없음
대상의 분명성	화자와 청자가 분명함. 그러므로 대화의 언어(구연)은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의 언어임	필자와 독자가 분명하지 않음. 그러므로 필자는 불 특정인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독자는 글을 읽음
공간 공유성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공간을 점유	필자와 독자의 공간이 다름
시간 공유성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간에 만남	필자와 독자의 사용처리(생산과 수용)시간이 다름
지시대상의 구체성	지시 대상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임	지시대상을 볼 수 없음
언어 사용자 구분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는지 명확히 구분 가능	글을 읽으면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음

이처럼 설화의 구연성은 화자의 청자가 이야기를 매체로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시키도록 유도하여,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시키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설화의 구연(말하기, 듣기)이 가지는 정서함양이라는 교육적 가치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설화를 통한 듣기 말하기 교육에서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들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일반 원리에 맞게 요약하여 발표하기가 될 것이다. 말을 하거나

46) 박영복 외, 『국어 교육학 원론』, 교학사, 1996, pp.89-90.

글을 쓸 때는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를 알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무엇보다도 구연되는 이야기를 녹음기나 비디오 카메라로 녹음하였다가 내용 조직의 일반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말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설화 작품에서 풍부하게 구사되고 있는 구어적, 관용적 표현을 학습할 수 있으며 심미적 언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설화 작품을 통한 언어 학습은 작품 속에 인물들이 사상, 감정, 관습, 소유물, 관계, 가치관, 태도를 통해 그들이 사고하고, 믿고, 두려워하고, 즐기고, 표현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설화를 통한 듣기·말하기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구연을 통한 학습, 토의식 학습, 문답법 학습, 미완성의 이야기 꾸미기 학습으로 제시하였다.

## 1. 구연을 통한 학습

설화는 구비문학 작품이므로 구연이 필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문자로 정착되어 많이 읽혀지고 있다. 구연자의 음성적 변화, 표정, 몸짓 등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을 보다 흥미롭게 이해하여 듣는 설화가 읽는 설화보다 더 흥미롭고, 감동적이며 이야기의 내용과 주제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어조를 살려서 말하게 하는 학습은 구연을 통해 상상력과 더불어 말하기와 듣기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말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존재한다. 결국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의사소통의 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 중의 하나는 말하는 내용에 맞는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다. 말하는 내용이 슬픈 것이냐 기쁜 것이냐 아니면 심각한 것이냐 재미있는 것이냐에 따라 달리 말해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다르듯이 목소리도 모두 다르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사람이 수없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sup>47)</sup>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말하기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말하는 내용이 슬픈 것이면 슬픈 어조로 말하고 기쁜 것이면 기쁜 어조로 말할 필요가 있다. 즉 어조를

47) 김 미, 『설화교육론』,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36

살려 말할 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적절한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구연을 듣는 학생들은 들을 때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듣기는 자신의 배경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해서 들은 내용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흔히 듣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단순히 수용하는 수동적인 행위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지만, 듣기는 청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역동적인 행위이다<sup>48)</sup>.

어떤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청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 내용을 해석, 평가, 비판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내용을 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듣는 동안에 청자가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가 하는 등의 그 ‘과정’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상상하며 듣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와 관련된 사실이나 경험 등을 떠올리면서 듣는 것을 말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이야기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꺼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런 구연을 통하여 내용에 따라 감정을 넣어 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상상하는 힘과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구연의 효과는 듣기 면에서 차분하게 듣는 습관이 생기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고 요점을 듣는 자세가 생긴다. 말하기 면에서 발음이 정확해지고 말하는 능력이 신장되고 알맞은 어조로 말할 수 있고 음색이 고와지고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긴다. 구연은 안내과정, 시범·질문과정, 구연과정, 평가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첫째, 안내과정이다. 이 과정은 구연하고자 하는 작품과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고 명료하게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전략, 과정 등을 안내한다. 교사는 먼저 구연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구연기술을 연습시키고 구연자와 청자의 태도를 숙지시킨다. 다음에 작품의 주제, 등장인물, 작품 구조 등을 분석하여 구연에 앞서 작품에 관한 배경지식을 만들어 준다. 제주도 효행설화 중 <출천지효>를 구연할 때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해서 구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둘째 시범·질문과정으로 선정된 자료를 직접 시범,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시범을 보이는 과정이다. 이러한 시범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응답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48) 이귀선, 『설화를 통한 말하기 지도 방안』,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38.

을 한다. 가령 <천출지효>를 구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가 작품을 읽어보고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질문을 한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 그리고 구연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이때 선생님이 직접 한번 구연을 시범 보일 수도 있고, 구연된 테이프를 들려줄 수도 있다. 그런 후에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시범을 보고 학생들이 느낀 점을 모둠별로 질문 또는 발표하게 한다. 모둠별로 발표를 할 때에는 모둠에서 먼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런 후에 한 모둠도 빠짐없이 발언권을 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른 모둠에서 말하게 한다. 이는 구연의 예비연습으로 생각한 바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표현력을 기르는 훈련이다.

셋째 구체적인 전략에 따라 구연한다. 구연기술을 활용하여 작품의 특성에 맞는 어조와 성향에 의해 구연한다. 구연은 구연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므로 청자의 반응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단계별 구연지도다.

- 해설부분만 따라하기, 대화부분만 따라하기
- 시범 구연 따라해 보기
- 분담구연하기(해설, 대화 부분으로 나누거나, 역할을 나누어 구연)
- 전체 구연하기(감정, 정서를 나타내며 분위기에 알맞은 성량, 속도로 구연)

넷째, 평가는 구연자의 구연이 청자에게 의도대로 잘 전달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평가는 구연이 이루어진 후에 구연자는 평가를 참고하여 다음 구연에 활용한다. 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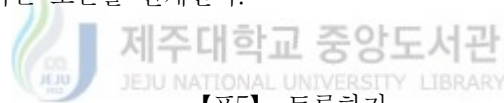
- 목소리는 알맞은가?
- 구연하는 태도는 좋은가?
- 말하는 어투는 자연스러운가?
- 자신 있게 하는가?
- 흉내는 잘 내는가?
- 의도는 적절하다.

## 2. 토론식 학습

토론식 학습은 참여하는 학습자 상호간의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므로 말하기 교육에 효과적이다. 수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토의의 리더(또는 사회자)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한다.

설화를 읽고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내용을 생각하게 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게 된다.

- 설화의 주제를 다층적으로 파악해 본다.
-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을 이야기하고 학습 간에 흥미로웠던 내용을 비교한다.
- 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의 구조와 비교한다.
- 설화를 통한 생활 속의 지혜와 교훈성, 도덕성을 이야기한다.
-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갖고 토론을 하면서 상대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토론을 전개한다.



【표5】 토론하기

토론하기	
학습 목표	1. 토론의 화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비평할 수 있다.
※ 다음 이야기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p><b>&lt;남군열녀&gt;</b></p> <p>들에서 일하던 며느리가 점심을 하러 가보니 시어머니가 손자를 닭으로 생각하고 솥에 삶고 있었다. 며느리가 아이를 뒷 곁에 묻어 놓고 닭을 잡아 시어머니께 드리고 들로 나갔다.</p> <p>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집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하였다.</p> <p>관사에서 이것을 알고 효자 내외로 크게 표창하였다.</p>	
<p>1.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발표해 봅시다.</p> <p>2. 남편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에서 타당</p> <p>3.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을 이야기하고 학습 간에 흥미로웠던 내용을 비교 한다.</p> <p>4. 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의 구조와 비교 발표해 봅시다.</p>	

이렇게 함으로써 설화의 내용과 느낌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상상력과 통찰력이 길러진다.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교사는 토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풍부해야 하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3. 문답법

효과적인 질문 정도에 따라 학생 중심의 사고력과 창의력 그리고 말하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높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생각을 요하게 하는 질문이 많은 효과가 있다. 특히 설화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안겨 주기도 하지만 고정된 통념에 한없이 쫓아들게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하다.

【표6】 문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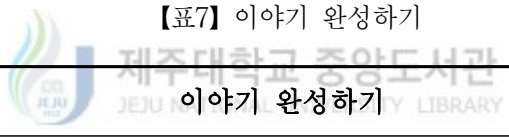
문답법	
학습 목표	1. 제목을 보고 글에 대한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2. 설화를 읽고 의문들을 질문으로 만들 수 있다.
※ 다음 설화 제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p style="text-align: center;"><b>&lt;효자다리&gt;</b></p> <p>               할머니가 외아들하고 둘이서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밤에 몰래 훔아비를 만나서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찬 냇물을 건너다니는 것을 알고 징검다리를 놓아드렸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느라 놓은 다리이기 때문에 효자다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을 보고 이야기의 내용을 말해 볼까?</li> <li>▪ 제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li> <li>▪ 제목으로 미루어 보아 이야기의 내용이나 결말을 예측해 보자.</li> <li>▪ 이 제목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는가?</li> <li>▪ 예전에 읽은 이야기나 과거의 경험 같은 것.</li> <li>▪ 설화를 읽고 내용을 재검토하기.</li> <li>▪ 설화를 읽으면서 품었던 의문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자</li> <li>▪ 주인공, 목적, 장애, 결과 등에 관한 질문을 생성 한 후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대답을 해 보자</li> </ul>	

#### 4. 이야기 완성하기

여운을 남긴 채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펼쳐질 사건이나 줄거리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내재된 가치관의 확인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작품의 원전 내용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쓰거나 말하기를 하면 독창적인 글이 많이 나온다. 즉 학생들에게 설화의 전반부를 들려준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게 하거나 상상하여 이야기를 해 보게 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의 학습활동과 관련되는 학습자의 반응이 결코 한가지 일 수 없다. 학습자의 경험이나 학습 정도에 따라 또는 학습자의 정서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러한 다양한 반응을 교수-학습 과정에서 적극 수용해야 하며 다양한 반응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고려하여 그것을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간 형태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7】 이야기 완성하기

 <b>이야기 완성하기</b>	
학습 목표	1. 이야기의 끝부분을 창의적으로 이어쓸 수 있다. 2. 자신의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할 수 있다.
※ 다음 이야기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b>&lt;수월봉과 녹고물&gt;</b> 수월이와 녹고라는 두 남매가 할머니를 모시고 의종게 살고 있었다. 어느 해 봄 어머니는 몹쓸 병에 걸려 위독하였다. 좋다는 약은 다 써 보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어느날 지나가던 중이 백 가지의 약초를 가르쳐 주었다. 두 남매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백 가지의 약초 중 99가지의 약초를 구했다. 안타깝게 한 가지 약초를 찾지 못했다. 약초의 이름은 오갈피라는 풀이었는데 높은 바위가 산비탈 같은 곳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	
◆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 써 봅시다.	



## IV. 지도의 실제

### A. 교수·학습을 위한 지도 요소

문학 교육은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하여 체험 확대·정서의 순서를 피하고, 상상력·창조력·심미성·도덕성을 기르며,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 교육은 감정적 색조나 정서, 수용·거부의 태도 등을 중시한다. 그것들은 정의교육의 속성인데, 흔히 흥미, 태도, 감상, 가치, 정서적 반응 경향<sup>49)</sup>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을 지도할 때는 학습자들의 삶과 동떨어진 단순한 지식의 암기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대적 삶과 연계시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문학학습을 정의적 측면의 학습으로 볼 때 정의적 특성이 내면화되는 과정에 대하여 블룸이 설명한 5단계 교육 목표 분류<sup>50)</sup>에 의해 제주도 효행설화에서 다루어질 지도 항목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1. 감수

이 단계는 문학 작품을 대하는 첫 단계이다. 학습자가 문학 작품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것을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은 문학 작품의 내용을 감수하기 위한 의식을 지녀야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주의 집중을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할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효행에 관한 이야기에 대하여 텔레비전을 통해 보거나 책으로 읽은 경험을 발표하기

49) 최운식·김기창, 『진래동화교육론』, 집문당, 1988, p.77.

50) 정원식, 『정의의 교육』, 배영사, 1973, pp.22-25

- ◇ 삼강행실도에 효내용 삽화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상상하여 보기
- ◇ 효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이해하거나 감상하는 데 어려움을 줄 낱말과 문장의 뜻 알아보기
- ◇ 효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대강의 줄거리를 발표하게 하고, 전체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이와 같이 감수단계는 작품에 대한 윤곽을 알게 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자를 작품으로 접근시키는 안내의 단계로서 작품 이해와 감상에 지장이 될 것 등을 제거해 주는 학습 단계라 하겠다.

## 2. 반응

이 단계는 어떤 문학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는 감수의 단계를 넘어서서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을 이해하는 참여 활동의 단계이다.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읽거나 읽은 후에 체험하는 반응은 인지적, 정서적, 심미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 세 측면의 반응은 각각 분리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작용하여 통합된 문학적 체험을 이루는 것이다.

### a) 인지적 반응

인지적 반응에는 단순한 이해의 수준과 분석의 수준이 있다. 단순한 이해의 수준이란 일반적인 독서 이해의 수준으로 이야기에 쓰인 어려운 낱말, 구절, 문법적 구조, 단순한 비유나 관용어 등을 이해하거나, 삽화를 통하여 작품을 이해하며, 글쓴이의 의도 파악하기 등이다.

### b) 정서적 반응

작품속에 제시된 인물, 사건, 장면 등에 대한 느낌이 정서적 반응이며, 정서적 반응은 인지적 반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 효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보거나 읽었을 때의 느낌을 말해 보기

- ◇ 효행설화를 구연해 본 경험과 느낌 발표하기
- ◇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한 장면 말하기
- ◇ 가장 긴장되는 장면 말하기
- ◇ 효자의 행동 중 본받아야 할 점과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점 말하기

#### c) 심미적 반응

심미적 반응 단계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 단계에서 알게 된 내용을 적절하게 연관지어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확인 단계라 할 수 있다.

- ◇ 효자가 고난과 역경을 당한 이유 알아보기
- ◇ 효자가 효를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 알아보기

### 3. 가치화

이 단계는 작품 이해의 활동과 참여하여 얻은 결과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문학 교육 활동의 본질적인 단계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가치관을 학습자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학습자가 보다 나은 가치관을 갖도록 하여, 그것이 그의 확신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 내가 효자 ~라면? 상상하여 써 보기
- ◇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며 보기
- ◇ 이야기에 나오는 효행주체와 효행대상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 ◇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어휘를 찾아보고 그들에 대한 가치와 특성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점수 매기기

### 4. 조직화

이 단계는 학습자가 여러 가치를 내면화해 가면서 당면하는 하나 이상의 가치가 관련되는 사태에서 여러 가치를 하나의 체계로 조직하고,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결정하며, 하나의 계급적인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것을 조직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문학 교육에서는 문학 작품에서 얻은 여러 가치를 체계화·개념화하여 실사회 생활의 원동력이 되도록 보다 복합적이고 고도화 가치로 조직하는 단계이다.

- ◇ 효자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중심 생각 말하기
- ◇ 효자이야기의 앞부분만 들려주고 뒷부분의 이야기 완성시키기
- ◇ 상상력을 동원하여 효자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말하기
- ◇ 효자 이야기속에 내재된 전통적 민간인의 사고와 가치관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 갖기

## 5. 성격화

이 단계는 내면화 과정의 최종적인 단계이다. 문학 작품에서 얻은 조직화된 가치가 학습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성격화되는 단계이다

- ◇ 효자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에서 본받을 점 실천하기
- ◇ 효자이야기의 주인공에게 편지글 쓰기
- ◇ 효자이야기 읽고 독서 감상문 쓰기

제주도 효행설화를 문학작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 항목들을 추출해 보았다. 설화는 위에서 제시한 항목들을 거치면서 얻게 되는 내면화의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면에서 효행설화를 읽기 위한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문학 적 체험을 통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며, 이를 가치화·조직화·내면화·시키는 과정이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 학습 모형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B. 교수·학습 모형의 실제

국어과 교수-학습 지도의 경우 가르치고자 하는 학습의 목표와 내용의 성격,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이나 능력, 학습 자료 구비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교수-학습의 형태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의 형태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적용상의 유의점을 충분히 파악해야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설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의미한 학습 상황으로 전이시키기 위해서는 제주 효행설화 자료를 교수-학습 자료로 재해석하여 학습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형태와 내용으로 정제해 내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어과 학습 유형 중 창의성 계발 학습, 반응 중심 학습, 역할놀이 학습, 가치탐구 학습, 직접교수 학습을 중심으로 제주도 효행설화 수업 과정안을 구성하였다.

### 1. 창의성 계발 학습



창의성 계발 학습은 제 7차 교육 과정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을 기르게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과정을 거친다. 즉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제주도 효행설화를 읽고, 주인공에 대해 평가하거나, 뒷 이야기를 상상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고 검증해 보게 할 때 적용할 만하다. 또한 말하기·듣기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이 유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간의 토의 학습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들에게 정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점차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검증해 나가는 단계에 이르도록 하며 논리 전개 사고 활동 과정의 마무리 활동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 때 수용적인 교실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에게는 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방법 등을 통해 도와 줄 필요가 있다.

### a) 창의성 계발 학습의 단계



#### (1) 문제 발견하기

문제를 확인하며, 동기 유발 단계에서 아이디어 생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분석하며,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정을 다시 생각해보고 문제를 재 진술하며 재 진술 활동이 문제 인식으로 연결되게 한다.

#### (2) 아이디어 생성하기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고 필요한 아이디어의 여러 가지 정보 나열로 그 가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문제에 대한 대안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찾아 보며,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교사의 계획적인 질문과 대안적인 활동 준비로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활동이 되도록 한다.

#### (3) 토의하기

허용적인 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나 모둠에게 적절한 실마리를 제공하여 생성된 아이디어에 대해 토의하며 선택활동을 통하여 다음 단계(아이디어 평가)의 관점을 가지게 한다. 또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사고 과정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한다.

#### (4) 아이디어 평가하기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일반화하는 단계이다. 학습 목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으는 활동도 검증이 될 수 있다. 토의 단계와 연결되고, 토의 단계

에서 일부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이 단계에서의 아이디어 평가는 일반화와 연결되는 정리 활동이다.

### b) 단계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

단 계	교수·학습 과정	유 의 점
문제 발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 확인</li> <li>문제 분석</li> <li>문제 재 진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파악하는 활동이 필요하다.</li> </ul>
아이디어 생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검토</li> <li>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문제분석 단계보다 새롭고 관점에 얽매이지 않는 활동이 되게 한다.</li> </ul>
토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성된 아이디어에 대한 토의</li> <li>아이디어 평가</li> <li>일반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집단을 다양하게 재조직하여 활발한 토의를 유도할 수 있다.</li> </ul>
아이디어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디어 평가</li> <li>일반적인 상황에 적용</li> <li>문제점 및 적용가능성 탐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현 단계에서 떠오른 아이디어의 가치를 검증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하도록 하는 도움말이 필요하다</li> </ul>

### c) 창의성 계발 학습 수업안의 실제

<출천지효> 이야기를 제재로 한 국어 수업을 【표5】와 같이 구성하여 보았다.

【표8】 창의성 계발 학습 절차에 의한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이야기 듣고, 뒷 이야기 상상하여 말하기	영역	말하기·듣기	수업 방법	창의성 계발 학습
학습 목표	이야기를 듣고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여 말할 수 있다.				
과정	세부 과정	활동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학습 상기</li> <li>동기 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야기 즐거워 말하는 방법 생각하기</li> <li>▶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 말하기</li> <li>- 이야기의 제목, 줄거리, 생각과 느낌 말하기</li> </ul>			교사가 간단한 이야기를 감정을 살려 들려주고 생각과 느낌을 말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 확인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 확인</li> </ul> <p>이야기를 듣고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여 말해보도록 한다.</p>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발견하기</li> <li>아이디어생성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발견하고 해결방법 모색하기</li> <li>· 이야기 듣기</li> <li>· 생각이나 느낌 정리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순서 안내하기</li> <li>▶ 뒷 이야기 상상할 때 주의할 점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를 잘 듣고 내용을 파악한다.</li> <li>- 그림을 보고 이야기 꾸미기를 한다.</li> <li>-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생각하며 꾸민다.</li> </ul> </li> <li>▶ &lt;出天之孝&gt; 이야기 듣기</li> <li>▶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호랑이의 성격 알아보기</li> <li>▶ 인물의 성격은 이야기의 전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며 정리하기</li> <li>▶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쓴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순서 안내도</li> <li>· TP 자료, 슬라이드 삽화자료</li> <li>· 구연(녹음기)</li> <li>· 학습지에 정리하기 (인물지도)</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디어평가하기</li> <li>적용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르게 생각하기</li> <li>· 다른 생각이나 느낌 말하기</li> <li>· 생각이나 느낌 제정리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별로 상상한 이야기를 나누기</li> <li>▶ 달라진 이야기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로 바꾼 이야기를 발표한다.</li> </ul> </li> <li>▶ 이야기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li> </ul> </li> <li>▶ 다른 이야기 뒷 이야기 꾸며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자 읽은 이야기 중 재미있었던 이야기의 내용을 바꿔 써 보기</li> </ul> </li> </ul>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며 자세히 살펴본다.
정리 ·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하기</li> <li>· 확인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평가하기(학습 활동 되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를 잘 듣고 뒷 이야기를 꾸몄는가?</li> <li>- 주인공의 성격이 잘 드러나게 꾸몄는가?</li> </ul> </li> <li>▶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미있었던 점 말하기</li> </ul> </li> </ul>	자기평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호 평가로 서로 잘한점을 격려해준다.



## 2. 반응 중심 학습

수용 이론이나 반응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 학습자들 각자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데 초점을 준다.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자는 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중심 문학 교육은 학습자들의 해석이나 반응의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각자의 반응을 존중하되, 토의를 통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신의 반응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유형은 효행설화에서 문학적인 텍스트를 다룰 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효행설화를 읽으면서 글의 주제나 인물 등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좀 더 적합할 것이다.

이 유형을 적용할 때는 무엇보다 텍스트 자체를 경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친구들과의 토론을 강조하여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감상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한다. ‘

반응의 심화’에서 다른 작품과 관련짓기에서는 가능한 다른 작품을 읽게 하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저학년의 경우 그 이야기의 즐거움을 들려주고 어떤 점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을 학습하는 데 있어 지식의 이해나 도덕적 교훈을 찾기보다는 재미있는 부분을 찾거나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는 등 작품 감상에 비중을 두도록 한다. 수용 이론이나 반응 이론에 근거한 반응 중심 학습모형은 학습자들 각자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지만 반응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토의를 통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 a) 반응 중심 학습의 단계



#### (1) 반응의 형성

학습문제를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스키마( 배경지식이나 경험)를 활성화하는 단계이다. 작품 개관 및 작품 읽기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방해요인을 파악하거나 심미적인 거래를 촉진한다. 반응의 형성 단계에서 단원의 제재와 관련 되게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데 이 수업 모델의 성패가 달려있다.

#### (2) 반응의 명료화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의 표현단계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 노래, 몸 동작 등 느낌을 끌어낼 수 있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반응의 표현 후 반응에 대한 질의 응답식 토의가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주관적인 반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내면화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며 고학년은 조별 토론을 거쳐,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 표정 짓기, 시연해보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조별 활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3) 반응 심화

형성된 스키마와 작품의 성격을 서로 관련지어 분석하는 단계이다. 모듈별 토의를 통하여 관련 작품을 찾아보며 모듈별로 자신의 의견을 교환하여 반응을 심화한다. 개인별 활동도 가능하고 조별 모임도 가능하며 이 때 묘미를 살린 학습의 진행이 요망된다. 여러 가지 작품을 한 두 가지 맥락에서 비교해보는 시도도 재미있으나 단, 이 경우는 학년의 수준 등을 적절히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반응의 일반화

인물에 대한 평가와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작품을 전체적인 수준에서 평가하거나, 인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상황 및 맥락을 반응의 결과로 제공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b) 단계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

단계	교수·학습 과정	유의점
반응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유발</li> <li>○ 학습목표 확인</li> <li>○ 배경 지식이나 경험 활성화</li> <li>○ 작품 읽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응의 형성 단계에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는 데 이 수업 모델의 성패가 달려있다.</li> </ul>
반응의 일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 표현</li> <li>○ 반응에 대한 토의 (질문 및 토의, 역할놀이)</li> <li>○ 토의 내용 정리 (반성적 쓰기, 그리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주관적인 반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내면화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 조별 토론, 그림 그리기, 표정 짓기, 시연해보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li> </ul>
반응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텍스트 확대 (다른 작품과 관련짓기)</li> <li>○ 다른 작품과의 관계에 대한 토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지식과 작품의 성격을 서로 관련지어 분석하는 단계이다. 여러 가지 작품을 한 두 가지 맥락에서 비교해보는 시도도 재미있다.</li> </ul>
반응의 일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에 대한 평가</li> <li>○ 일반화 가능성 탐색</li> <li>○ 결론 (일반화) 도출</li> <li>○ 또 다른 상황에 응용 또는 활용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을 전체적인 수준에서 평가하거나 인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상황 및 맥락을 반응의 결과로 제공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li> </ul>

c) 반응 중심 학습 수업안의 실제

【표9】 반응 중심 학습 절차에 의한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이야기 읽고 느낀 점 나타내기	수업 방법	반응 중심 학습
학습 목표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나타낼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			
과정	세부과정	활동내용	자료 및 유의점

반응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하기</li> <li>· 학습 목표 확인하기</li> <li>· 학습 계획</li> <li>· 학습분위기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출천지효&gt; 삽화를 보여주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li> </ul> </li> <li>▶ 본문 낭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에는 교사가 실감나게 읽어주고, 다음에는 학습자들이 감정을 살려 읽게 한다.</li> </ul> </li> <li>▶ 학습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를 읽고 느낌을 나타내어 봅시다.</li> </ul> </li> <li>▶ 학습활동 안내 및 주의점 안내하기</li> </ul>	· 학습 안내도
반응의 명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응의 표현(실연)</li> <li>· 개인적 반응의 표현</li> <li>· 반응에 대한 토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자의 여러 가지 효행 따라하기</li> <li>▶ &lt;출천지효&gt;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으로 나타내기</li> <li>- 편지글로 쓰기</li> <li>- 효자와 인터뷰 기사 쓰기</li> <li>- 뒷 이야기 상상하여 쓰기</li> <li>- 노래로 줄거리와 느낌 나타내기</li> </ul> </li> <li>▶ 친구들의 느낌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질문하고 칭찬해주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에 나오는 다른 장면을 제시할 수 있다.</li> <li>· 학습자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li> </ul>
반응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토론</li> <li>· 다른작품과 관련 짓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 인물과 대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자와 호랑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아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말하기</li> </ul> </li> <li>▶ 관련 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관련이 있는 점 찾아 말하기</li> </ul> </li> </ul>	· 짝지어 말하기로 진행해도 좋다.
반응의 일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하기</li> <li>· 학습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의 느낌 표현한 것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된 점은 서로 칭찬하여 준다.</li> </ul> </li> <li>▶ 학습 활동 후 느낌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소감, 재미있었던 점, 느낀 점, 어려웠던 점 등을 발표한다.</li> </ul> </li> </ul>	

### 3. 역할놀이 학습

역할놀이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실제로 경험해 보게 함으로써 의도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신의 역할의 자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위치에 두고 그 사람의 사고와 감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역할놀이는 다른 사람의 삶의 한 유형을 받아들이게 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역할놀이를 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은 주어진 문제를 좀 더 정확하고 실감나게 이해하게 되고,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자기가 선택한 것의 결과를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의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한다.

#### a) 역할놀이 학습의 단계



##### (1) 상황 설정하기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여 문제를 확인시키며 집중시킨다. 다음에는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문제에 대한 실제 상황을 서술하거나 교사가 상황을 선정하고 비디오나 텔레비전 쇼의 형식으로 예시한다. 상황 설정하기에서는 시연할 역할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루어진다.

##### (2) 준비 및 연습

역할놀이의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습하고 실연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학생과 교사는 그들이 무엇과 같은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배역들에 대해 설명하고 배역을 할당한다. 배역을 정한 다음에는 행동의 순서 결정, 역할의 재진술, 문제 상황의 내면 파악, 관찰자의 관찰 관점 정하기 과제 할당 등의 순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역할놀이 실연을 준비한다.

(3) 실연하기

놀이자는 역할을 실행하고 각자 현실적으로 반응하면 자율적으로 그 상황을 그대로 실연한다. 역할놀이가 유창한 극화가 되리라고 기대하지 말고, 각 역할의 놀이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 역할을 느끼는 것의 부분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일부이기도 함을 인식해야 한다. 후속 토의가 사건이나 역할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빠트린 것이라면 교사는 그 장면을 재현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4) 평가하기

역할놀이 후 관찰자와 놀이자가 서로 토의하고 교사가 정리하는 단계이다. 처음의 토의는 묘사한 것에 대한 서로의 다른 해석, 그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일치에 초점을 둔다. 그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중요시되는 것은 그런 행동의 결과와 행동의 동기이다.



b) 단계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

단 계	교수·학습 과정	유 의 점
상황 설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시키기</li> <li>○ 분명하게 제시하기</li> <li>○ 문제 발견하기</li> <li>○ 문제 탐색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이외의 역할 놀이의 경우 장면의 설정은 교과서 내용보다는 교사의 의도적인 목적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준비 및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역에 대한 설명</li> <li>○ 역할놀이 참여자 선정</li> <li>○ 무대 설치, 역할놀이 실연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 선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역할 분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함</li> <li>○ 교사는 기획자·촉진자로서의 역할에 그쳐야 함</li> <li>○ 실제 활동의 주체가 철저히 어린이여야 함에 유의할 것임</li> </ul>
실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 실연</li> <li>○ 장면의 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소 엉뚱한 발상에서 드러나는 활동 내용도 가능하다면 수용하도록 함</li> </ul>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찰자와 놀이자의 토의</li> <li>○ 경험의 교환, 일반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자도 매우 중요한 활동의 한 역할임을 철저히 인식시킴. 어린이에게 유의미한 언어적 활동경험이 되도록 함께 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이해시킴</li> </ul>

c) 역할놀이 학습 수업안의 실제

【표10】 역할놀이 학습 절차에 의한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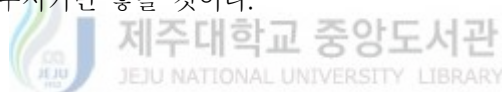
학습 주제		효의 소중함	수업 방법	역할놀이 학습	
학습 목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역할놀이를 통하여 효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및 유의점(☞)	
상황 설정 하기	문제상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 말해보기</li> <li>• 가장 재미있게 들은 이야기는?</li> <li>•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li> <li>•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li> </ul>		9'	▶이야기 삽화 또는 독서 감상화
	공부할 문제 확인 및 공부할 순서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할 문제 확인하기</li> <li>■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나누기</li> <li>■ 인물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 말하기</li> <li>■ 등장 인물의 특징 추측해보기</li> </ul>			
준비 및 연습	문제 상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 분석하기</li> <li>• 인물들의 행동 파악하기</li> <li>• 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괴로움을 해결했는가?</li> </ul>		10'	☞공부할 순서 안내에서 역할극의 차례를 분명히 알린다
	역할 분석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 인물에 맞게 말 주머니 써넣기</li> <li>■ 연기자 선정하기</li> <li>• 모듈별로 의논하여 역할 나누기</li> </ul>			
실연 하기	실연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놀이 연습하기</li> <li>• 각자 역할 연습: 행동, 표정, 대사, 몸짓, 말투</li> <li>• 간단한 도구 준비</li> </ul>		18'	☞소품은 미리 준비하면 활용에 유리하다
	실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듈별로 나누어서 역할놀이 하기</li> <li>■ 전체 앞에서 한 모듈의 역할극 보이기</li> <li>■ 인물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li> <li>• 누구의 행동이 가장 실감나고 재미있었나?</li> <li>• 내가 흥서자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li> </ul>			
실연 하기	토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뒷이야기 상상해보기</li> </ul>		3'	☞개인-모듈-전체 역할극을 하고 느낀 점을 모듈별로 토의한다
	재 실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생각대로 실연해보기</li> <li>• 내가 만약 흥서자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대로 해보자.</li> <li>■ 가장 인상적인 장면 말하기</li> <li>•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재미있는 장면을 말하기</li> </ul>			
평가 하기	평가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제시</li> <li>• 듣고 표현해 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재미있게 말해보기</li> </ul>			

## 4. 가치 탐구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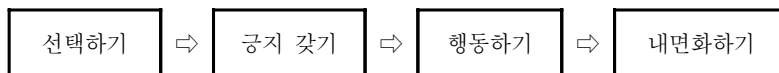
가치탐구 학습은 효행설화를 읽고 난 위에 해당 주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보기도 하고 비판해보기도 하는 단원에 적용이 가능하며 주제를 탐색해 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수업이나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내용, 논리적 말하기·듣기 학습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치 탐구 모형의 학습은 하나의 정답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각 대안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최선의 것을 선택해보게 할 때 적용하기 적합하다. 이 모형을 적용할 때는 학습자들 간의 토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토의를 통해 학습자들은 내 생각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엄격하게 단계를 거쳐 수업하기보다는 처음에는 특정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고 국어과의 정의적 교육과 관련하여 ‘태도’ ‘개념’을 확대 설정하면서 ‘가치’를 결부시키면 좋을 것이다.



### a) 가치 탐구 학습의 단계



#### (1) 선택하기

구체적인 가치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은 밝혀진 사태들을 토대로 문제나 토론의 주제를 찾아낸 다음 가치를 분석한 다음 자유롭게 선택한다.

#### (2) 궁지 갖기

자신이 선택한 가치, 입장, 관점 등에 대한 근거를 찾고 최대한 합리적인 주장을 마련하며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공포한다. 자신의 가치, 입장, 관점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예상한다.



(3) 행동하기

자신이 선택한 가치, 입장, 관점 등이 자신의 주변 일상 속에 적용된 예를 찾아보고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4) 내면화하기

선택한 가치의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하며 습득, 혹은 인식된 가치를 현실 상황에 적용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b) 단계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

단계	교수·학습 과정	유의점
선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 상황 확인</li> <li>가치 분석 및 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는 적절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li> </ul>
공지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한 가치를 분석</li> <li>선택한 가치에 대해 공지 갖기</li> <li>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공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치에 대한 선택과 분석은 철저히 독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li> </ul>
행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한 가치 적용</li> <li>가치에 따라 행동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치 탐구 학습 모형은 교육의 결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되었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과정을 거쳐 그와 같은 가치·태도를 지니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li> </ul>
내면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한 가치의 일반화</li> <li>선택한 가치의 내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습득 또는 인식된 가치의 일반화나 현실 상황에 적용하는 태도의 필요성 제기</li> </ul>

c) 가치 탐구 학습 수업안의 실제

【표11】 가치 탐구 학습 절차에 의한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갈등 사례 제시	· 동기유발	· 효도란 어떻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 다양한 대답을 한다.	5'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함.
문제 사태의 분석	· 학습목표확인 · 설화 읽기	· 이 시간에 공부 할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 제시된 설화의 내용을 음미하며 읽어보세요.		10'	
자기 입장 선택	· 호랑이로부터 시아버지 구하는 일	· 호랑이로부터 시아버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부는 아기를 호랑이에게 던졌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 몹시 괴로웠을 것이다. · 다양한 대답을 한다.		자기가 선택한 입장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자기 입장의 수정 및 대안 찾기	· 등장인물과 자신의 비교	· 내가 만약 그 부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발표해 보세요.	· 호랑이를 죽이는 다른 방법을 구하러 갑니다. · 아들을 죽여 시아버지를 살리는 행동은 어려우므로 포기합니다.	20'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효의 실천의지 다지기	· 이 설화를 통해 느낀 점은? · 새롭게 다짐하게 된 점은?	·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돕는다는 것입니다. · 효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 효도를 실천해야겠습니다.	5'	

## 5. 직접 교수 학습

직접 교수 학습은 교사가 대집단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을 설명하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연습하여 학생의 이해 정도를 조사하고, 교사의 지도하에 계속 연습하도록 하는 교수 형태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가르치거나 추상적인 사고 작용을 지도할 때, 또는 창의성을 지도할 때 적용할 수 있다.

학습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을 배제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교사 중심적인 면이 강하고, 학습자에게 단순히 모방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점은 학생이 원리를 알게 하는 것과 학생이 스스로 활동하게 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직접 교수를 적용할 때에는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여 교사 중심적인 면을 줄이고, 단순히 모방하게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a) 교수 학습의 단계



#### (1) 설명하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전략,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단계이다. 전략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예화나 예제를 통하여 설명하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전략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다. 새로운 개념이나 특성, 규칙, 원리, 절차 등에 대하여 교사가 상세하게 설명하여 학생이 정확한 지식을 토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2) 교사의 시범

주어진 학습 목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고의 과정을 구체적이고도 단순한 예를 통하여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거나 모델을 제시하는 활동 단계이다. 교사는 자신이 설

명한 원리나 절차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예를 찾아 학생들 앞에서 적절한 시범을 보인다. 교사의 시범은 학생이 모방하게 되기 때문에 원리나 절차에 잘 맞아야 한다. 교사의 설명과 시범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치려는 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에 숙달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교수법은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범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리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원리나 절차가 없는 시범은 단순한 반복 연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3) 질문하기

설명한 내용 및 시범 보인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학습 과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지식, 전략, 과정 등에 관하여 세부 단계별로 명시적인 질문을 하고 대답해주는 활동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기능 활용의 책임을 점진적으로 학생에게 넘긴다. 교사는 학생이 원리나 절차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질문을 한다. 학생은 자신이 기억하고 학습한 내용을 대답하여 이해 정도 및 기억 정도를 확인하게 된다. 학생이 대답하지 못하면 교사는 다시 설명하기 단계로 되돌아가야 한다. 무의식적인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그 답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한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 (4) 활동하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학습한 지식 및 전략을 사용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언어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 단계로 지금까지 익힌 방법을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 곧 적용·응용 단계이다. 학생이 지식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를 세분하여 한번에 한 가지씩 처리하도록 하며 학습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제시하고 원리와 절차에 따라 앞서 수행한 단계적 연습을 통해 학습한 기능,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b) 단계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

단 계	교수·학습 과정	유 의 점
설명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유발</li> <li>○ 학습목표 확인</li> <li>○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성, 중요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과 새로 학습할 내용의 요소와의 관계 설명</li> </ul>
시범 보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에 사용된 ‘예’ 제시</li> <li>○ 전략 사용 방법 안내</li> <li>○ 교사의 시범</li> <li>○ 적용상의 유의점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중심의 활동이기는 하나 가능하다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구성함이 필요함</li> <li>○ 시범은 단순한 내용의 전달이 아닌 전략의 활용임을 인식시켜야 한다.</li> </ul>
질문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단계별 질문</li> <li>○ 질문에 대한 답변</li> <li>○ 학생들의 질문 제기 및 교사의 응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은 전략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목적적이어야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리가 바로 활동하기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함이 바람직하다</li> </ul>
활동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상황에서 반복적인 연습</li> <li>○ 문제점 탐색</li> <li>○ 다른 상황에 적용</li> <li>○ 일반화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리가 바로 활동하기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함이 바람직하며 언어수준에 따라 학습 모둠을 이루는 것보다는 능력차가 있는 학생들을 한 모둠으로 구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li> </ul>

c) 직접 교수 학습 수업안의 실제

【표12】 직접 교수 학습 절차에 의한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상황에 맞게 말하기	영역	말하기·듣기	수업 방법	직접 교수 학습
학 습 목 표	○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되어, 내용과 상황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				
수업전 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본 읽어 오게 하기</li> <li>▶ 다양한 상황의 이야기 준비</li> </ul>				
단 계	학습 요점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동기 유발하기</li> <li>○ 학습 목표 확인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한 상황을 설정하여 목소리로 표현하기</li> <li>○ 삽화를 보고 어울리게 말하기</li> <li>○ 학습 문제 알아보기</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PPT자료 (도입 삽화)</li> </ul>

설명하기	내용과 상황에 어울리는 경우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에 어울리게 표현하기</li> <li>○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표현하기</li> <li>○ 학습 활동의 방법 및 순서 안내하기</li> </ul>	8'	★ 두 가지로 표현하여 학생 스스로 느끼게 한다.
시범 보이기	내용과 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 시범 보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진 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 시범 보이기</li> <li>· 녹음 자료 듣기</li> <li>· 각자 연습하기</li> <li>· 잘하는 사람 발표 듣기</li> <li>○ 주어진 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 안내하기</li> <li>· 주인공의 성격, 처한 상황에 따라 말하기</li> <li>· 알맞은 길이, 속도, 목소리로 말하기</li> <li>· 몸짓, 웃음, 울음 등 흉내내는 말 활용하기</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 자료</li> <li>★ 시범에 따른 이유를 자세히 안내한다.</li> </ul>
질문하기	언어 표현 활동 방법 터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활동의 과제를 제시하여 교사와 아동이 공동으로 해결해 보기</li> <li>○ 오류 교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언어 표현 방법 연습하기</li> <li>○ 활동하기를 위해 터득된 방법 재확인하기</li> </ul>	18'	★ 교사-학생, 학생-학생의 상호 질문을 통하여 오류의 부분이 교정되게 한다.
활동하기	주어진 상황에 맞게 표현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준에 맞는 개별 활동하기</li> <li>· 교사와 함께 공부하기</li> <li>· 녹음 듣고 따라하기</li> <li>· 인형극 해보기</li> <li>· 역할극 해보기</li> </ul>	32'	★ 수준에 알맞은 표현 활동을 하게 한다.
정리하기	학습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집단 또는 개별로 학습 내용 발표하기</li> <li>· 상호 평가 및 자기 평가하기</li> <li>○ 학습 내용 요약 정리하기</li> </ul>	4'	★ 학습 내용을 자신 있게 표현하게 한다.
수업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 수준 학습 내용 계속하기</li> <li>▶ 방송극 꾸며 실연하게 하기</li> </ul>			
평가	▶ 주어진 상황에 어울리게 말하는지 평가			

여기에 제시한 다섯 가지 학습 모형만이 설화 수업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설화의 교육적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목표와 학습 절차를 가지고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겨진다.

## V. 결론

지금까지 제주도에 구비 전승되는 효행설화를 대상으로 전승양상과 전승의식을 살펴보고 문학교육 제재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현재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제주도 효행설화를 효행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정성을 다해 봉양하는 효 15편, 순종과 희생의 효 8편, 지성이면 감천형 효 3편, 효불효형(孝不孝型) 2편, 불효자의 개심형(改心型) 1편으로 나눌 수 있었다.

둘째, 효의 본질이 물질적인 봉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공경하고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에 있고 현실적인 고난이나 불행은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밝고 낙천적인 세계관과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제주인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셋째, 문학교육을 위한 제재에서는 인물, 배경, 서사전개, 언어 표현면으로 나누어 작품이 갖는 문학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문학교육 제재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현재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블룸이 제시한 5단계(감수-반응-가치화-조직화-성격화)를 참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육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어과 교수·학습의 대표적인 모형 창의성 계발 학습법, 반응 중심 학습법, 역할놀이 학습법, 가치 탐구 학습, 직접 교수학습 중심으로 수업 과정안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는 전국 지역과의 비교가 없어서 제주도 지방에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라 그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 지역의 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적 효의 개념과 가치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효행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제주편, 평민사, 1992.
-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68.
-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 제주도, 『제주도의 문화유산』,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1982.
- 제주도교육청 편,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 교육청, 1996.
- 문화예술과 제주도지편찬위원회 편, 『제주의 민속Ⅲ·설화·민속·속담』, 제주도, 1995.
- 제주도, 『제주충효열지』, 일신옵셋, 1990.

### 2. 단행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 강등학 외 8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 김병욱 편·최익규 역, 『현대소설의 이해』, 대방출판사, 1983.
- 김익수, 『한국의 효사상』, 서문당, 1977.
- 김화경, 『한국설화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7.
- 김태근, 『한국무속 연구』, 집문당, 1985.
- 소재영, 『한국설화문학연구』, 숭실대학교 출판부, 1989.
- 손동인, 『한국 전래동화 연구』, 정음문화사, 1984.
- 손진태, 『한국 민족 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 송효섭, 『민담학 개론』, 일조각, 1982.
- 이강욱, 『조선시대 일화 연구』, 태학사, 1998.
- 이부영,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고려원, 1995.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4.
- , 『한국설화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0.



- , 『설화문학개설』, 삼우출판사, 1980.
-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1.
- , 『한국설화와 민족의식』, 학문사, 1993.
-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 ,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 최래옥,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 그 변이와 분포를 중심으로』, 일조각, 1981.
- 최운식, 『심청전 연구』, 집문당, 1985.
- , 『한국설화연구』, 새문사, 1994.
- 최운식 외, 『문학교육론』, 집문당, 1986.
- 최운식, 김기창, 『전래동화교육론』, 집문당, 1988.
- 최운식, 김기창,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8.
- 최인학, 『한국설화론』, 형설출판사, 1974.
- , 『구전설화연구』, 새문사, 1994.
- 황폐강 외, 『한국설화문학입문』, 지식산업사, 1982.



### 3. 논문

- 高碩希, 『濟州島 變身說話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고희주,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강덕희, 『한국구전효행설화의 연구』,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 제11집, 1983.
- 강진옥, 『효자호랑이설화에 나타나는 효 관념』, 민속연구 제1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 권석환, 『효행설화 연구-희생효 설화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권영철, 『경북지방인의 의식구조가 효열행위로 나타나는 諸相研究』, 『여성문제연구』 제8집,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4.
- 권정인, 『설화교육연구-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기중, 『효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金南九, 『嶺東地方의 說話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대숙,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 김동기, 『한국효행설화의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 , 『문집소재 효행전 연구』, 『황패강선생고회기념논총Ⅱ 설화문학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8.
- 金成鳳, 『慶北 地方의 孝行說話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 미, 『說話教育論』,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영복, 『충남지방의 효행설화의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용주, 『양자효행설화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金鎮億, 『三陟地方의 說話 研究』, 관동대학교, 2001.
- 박영주, 『효행설화의 고난해결방식과 그 의미』, 『도남학보』16권 도남학회, 단일호, 1996.
- 朴喆榮, 『嶺南地方 孝烈傳說의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배도식, 『韓國 虎說話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 신웅철, 『한국설화에 나타난 효의 세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 서태수, 『자녀희생효설화를 통해 본 효행주체의 의식』, 『청어람문학』 5, 청어람문학회, 1991.
- 심웅철, 『한국설화에 나타난 효의 세계』,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蘇恩正, 『효행설화의 유형과 의미-영남지역 설화를 대상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소재영, 『제주지역 설화 문학의 비교연구』, 『송실어문』 제11집, 송실대학교 송실어문연구회, 1985.
- 이상일, 『효행윤리의 변이 연구-설화의 역사화 과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3,4집, 성균관대학교, 1974.
- 임재해, 『설화의 존재양식과 갈래체계』, 『구비문학』 8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5.
- 안광남, 『<토끼의 피>설화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계학, 『효 교육의 당위성과 인간교육에 관한 인간학적 고찰』, 동덕여자대학교 논문집, 1978.
- 이영희, 『<지네 각시 설화>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호주, 『호랑이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이귀선, 『설화를 통한 말하기 지도 방안』,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李知香, 『全北地域의 孝行說話 研究』,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윤승원, 『<효자악득설화>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윤옥자, 『구연동화의 교육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정인모, 『경남지방 효행설화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조성민, 『한국효행설화 연구-전북지방 효행설화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조혜란, 『<호랑이와 꽃감>설화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장병호, 『한국 호랑이 설화의 유형과 성격』, 『한국어문교육』 제8집,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99.
- 정근호, 『효개념의 탐색과 그 현대적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최래옥, 『설화와 그 소설화 과정에 대한 구조적 분석』, 『국문학연구』 7집, 국문학연구회, 1968.
- 최혜순, 『효 사상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한동기, 『효행설화의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한 섭, 『효 윤리의 현대적 실천을 위한 교육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허 춘, 『제주 설화의 특성 연구』, 『제주도연구』 제16집, 1999.
- 현길언·김영화, 『제주 설화를 통한 제주도정신 고구』, 『제주대학논문집12』, 1980.
- 현승환, 『내 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 『삼공본풀이의 傳承意識』, 『耽羅文化』 13,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3.
  - ,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문화계통』, 『濟州文化研究』, 제주문화, 1993.
  - , 『삼공본풀이 형성과정 연구』, 『濟州島言語民俗論叢』, 제주문화, 1992.
  - ,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탐라문화』 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 , 『설화조사의 현황과 전망』, 백록어문 11집, 1995.

<Abstract>

**Plans for Educational Use of Folk-Tales about Filial Conduct  
in Jeju Island**

**Shin, Eun-jung**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Seung-hwan**

This study purposed to verify propriety of folk-tales and literature as materials for litera education aiming at folk-tales about filial conduct which are handed down in Jeju Island and literature in which filial conduct was described and grope for plans to gain educational effects of inducing learners' interest and motivation, activation of background knowledge, emotional sympathy and interest in local culture by using its plans in curriculums of the current secondary schools.

Folk-tales about filial conduct are folk-tales with piety, a traditional ethic criterion as the central figure. The reason to hand down these folk-tales is that they contain educational function to encourage filial piety and strengthen the concept of filial piety and literary interest.

To teach students local literature is an important work to establish their identity, so it was intended to achieve this through Korean language education. Moreover, this study concentrated its efforts not only on establishing identity focus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lk-tales but also on finding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As the result, tales about filial conduct were summed up as the following:

First, with regard to aspects of handing down to them, its focus was placed on to examine types depending on contents: filial piety to support parents with sincerity, filial piety of obedience and sacrifice, a type of filial piety that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a type of filial piety that it is filial piety from some viewpoints, while it is not filial piety from other viewpoints and a type that an undutiful son corrected his conduct.

Second, in awareness of transmission, inferred were a world outlook which is bright and optimistic about future, and reasonable and practical consciousness of people in Juju Island that the true nature of filial piety is placed not on material support but on respecting parents' will with sincerity and having them happy and pleasant, and realistic suffering or unhappiness can be overcome if people make all efforts.

Third, regarding materials for literary education, materials were divided into characters, backgrounds, narrative development, and linguistic expression and it was intended to investigate literary disposition that pieces of work have. In addition, its propriety was verified as materials for literary education and plans to use in curriculums of the current secondary schools were presented. It referred to five stages (receiving–responding–valuing–organization–characterization) presented by Bloom and educational plans were prepared based on the–above stages.

Lastly, among teaching · learning model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plans for using these were found in order to apply them in actual learning.

Because this study analyzed materials limited to Jeju Island without comparison with regions around the county, some limits exist in its generalization. However, it was possible to obtain results which did not depart from Korean traditional concept and values of filial piety through analysis of materials only in the region of Jeju Island.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6.